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10호 【루계 제25453호】 주체105(2016)년 11월 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200일전투장마다에서 공격속도를 비상히 높이자

북부전선에서 보내온 소식

강하천정리공사과제 빛나게 수행

연사군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충길소속부대 군인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과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앞장에 서야 합니다.》

연사군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충길소속부대 장병들이 연면수를 락원의 강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섰다.

연사다리공사를 와닥닥 끝내어 부대의 전투력을 과시한 이곳 장병들은 단 열흘만에 6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다리주변의 1 500m의 제방공사를 결속하였다.

부대장병들이 연면수강하천정리공사의 큰 몫을 맡아 짧은 기간에 끝냄으로써 새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읍지구를 감돌아흐르는 연면수와 그 주변이 자연의 대재앙의 흔적을 덮어버리며 날마다 희한하게 변모되고있다.

연사군 읍지구를 휩쓴 큰물피해로 연사다리가 파괴되고 제방이 곳곳에서 허물어졌다.

연사다리공사에 이어 10만여장의 블로크치기를 끝낸 부대앞에는 또다시 강하천정리공사를 진행할데 대한 전투과업이 하달되였다. 부대장병들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조철호, 리창진동무들을 비롯한 부대정치부의 지휘관들은 병사들과 맞돌이를 돌고 달리면서 격식없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개하였다. 인민복무정, 인민사수전의 깃에서 이룩된 병사들의 소행을 전부대에 일반화하는 사업과 함께 방송선전차와 음향설비 등을 총동원하여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온 전투장을 진감하도록 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퍼지는 속에 백병전을 련상케 하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부대장병들은 일심동체가 되여 무거운 막돌들을 어깨에 지고 달리고 또 달리였으며 손이 터갈라지도록 제방석축작업을 다그쳤다. 어려대의 불도젤들과 수백명의 군인들이 동원된 강하천정리전투장에서는 더욱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불도젤운전수들과 부대의 장병들은 연면수의 차디찬 물과의 전투를 벌리며 하루 1만㎥이상의 토량을 처리하며 물길을 곧게 펴나갔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는 가운데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였다. 부대에서는 구분대별경쟁열풍을 일으키면서 앞선 단위의 경험을 따라배우도록 하는 사업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주의경쟁에서는 류철원소속구분대와 리영선소속구분대가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부대에서는 전투조직과 지휘를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불도젤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부대에 배속된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들에게 작업분담을 명백히 주고 사전에 현장을 료해하도록 하였다. 부대장병들이 강하천정리공사를 처음 치을 해보는데 맞게 공정별에 따라 어려차례의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였다.

최대의 공격속도와 함께 질보장은 부대의 장병들이 틀어쥔 중요한 문제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인 최정남, 김철수, 강종혁동무들은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그마한 리도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병사들과 불이 번쩍 나게 일을 해제끼며 실천적모범으로 최상의 질보장을 위해 뛰고 또 뛰였다. 병사들은 늦은 밤, 이른새벽 누가 보는 사람이 없지만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글발을 심장에 새기고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갔다.

조선인민군 김충길소속부대 장병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연사다리주변의 강하천정리공사는 성과적으로 끝났다.

지금 강하천정리공사에 투입된 다른 시공단위들에서도 기세를 올리며 제방쌓기, 호안정리 등 맡겨진 공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그들의 힘찬 투쟁으로 연면수의 면모는 시간이 다르게 일신되고있다.

현지보도반

전화위복

◇우리 조국의 북변에서 날에날마다 창조되는 전화위복의 기적들이 세상을 놀래우고있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불과 40여일만에 경흥군에서 첫 승전포성이 터져오른데 이어 다른 지역들에서도 살림집완공이 다그쳐지고있다.

북부전역에 훌륭한 보금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경이적인 현실은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헤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혁명적기백과 랑만, 무한대한 정신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있다.

◇전화위복의 기적창조는 혁명적락관주의를 체질화한 조선혁명가들의 투쟁방식이며 기질과 본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 혁명의 한길, 주체의 한길을 따라 줏줏이 걸어왔으며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승리에 승리를 이룩하여왔다.》

순풍에 돛을 달고온 날보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온 날들이 더 많은것이 우리 혁명이다.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가들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것을 불변의 기치로, 기본투쟁방식으로 틀어쥐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백두의 깔바람속에서 전화위복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였다.

전후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혼연일체가 되여 혁명의 난국을 주동적으로 맞받아나감으로써 재더미우에서 천리마가 날아오르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고난의 시기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였다.

질해고도에서도 비환하지 않고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락관주의, 전화위복창조의 투쟁기질과 본때는 절세의 위인들을 전두에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만을 력사에 아로새겨온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뿌리를 두고있다.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모두가 전화위복의 창조자, 자랑찬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

전화위복의 기적창조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만 필요한것이 아니며 전화위복의 창조자는 따로 있지 않다.

어느 일터에서나 막힌 고리를 찾아내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일군들은 조성된 난국을 앞장에서 헤여나가는 전화위복창조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

혁명의 주체인 근로대중을 불러일으키면 불리한 객관적조건도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력사적경험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든든한 배심, 전화위복의 창조자, 담당자는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맡은 임무수행에 헌신분투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새로운 만리마시대를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의 년대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10월 석탄생산, 기본굴진, 준비굴진계획 완수

석탄공업부문의 탄광들에서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총정의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10월 석탄생산계획과 기본굴진, 준비굴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석탄공업성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0월중 석탄생산계획은 102%, 기본굴진계획은 100%, 준비굴진계획은 104%로 초과완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총정의 200일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10월까지 기간에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백십여만톤의 석탄을 증산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함북도 북부전선의 승리를 위하여 총돌격해나선 화력발전소들과 세멘트공장들 그리고 금속공장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에서는 북부피해복구사업을 200일전투의 중심과제로 반영하고 모든 힘을 총동원, 총집중할데 대한 당중앙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성일군들이 각지 탄광들에 내려가 전투좌지를 차지하고 더 많은 석탄을 화력발전소들과 세멘트공장들, 금속공장들에 최우선적으로 보내주기 위한 협동작전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계속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10월 석탄생산계획을 106%로 넘쳐 수행하였다.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앞장에 선 전형단위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증산실적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련합기업소당, 행정일군들,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석탄증산투쟁을 과감히 벌려 석탄생산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련합기업소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가고있다.

10월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심부에 찬 물을 뽑아내기 위한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는 형봉탄광이 앞장에 섰으며 남양탄광, 서창청년탄광, 철봉탄광 그리고 덕천, 덕성, 제남탄광에서 계획수행의 자랑찬 승전고가 높이 울려퍼지였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10월 석탄생산계획을 104%로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명학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증산투쟁을 과감하게 벌려 석탄생산계획을 106%로 넘쳐 수행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200일전투의 격전장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줄 불타는 일념을 안고 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였고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에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이곳 련합기업소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도 많은 량의 석탄을 보내주었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도 10월에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함북도 북부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 석탄생산계획수행의 자랑찬 승리의 함성이 높이 울려퍼지였다.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은 살림집건설전투를 비롯한 피해복구전투를 한시바삐 결속하여야 하는 그처럼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10월 석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10월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석탄공업부문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11월에 들어와 겨울철석탄생산준비를 힘있게 다그치면서 석탄생산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기관차수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서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서해지구의 많은 농촌들에서 낟알털기 결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해나가고있는 속에 서해지구의 많은 농촌들에서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것은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총진군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최단기간에 끝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서해지구 농촌들의 일군들은 주도세밀한 작전과 지휘로 낟알털기전투에서 새 기록, 새 기준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였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정책관철전의 불길높이 낟알털기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시에서는 구역, 군들의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벌려 서로의 경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하였다.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맹렬한 추격전이 벌어지는 속에 시적으로 수십개의 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낟알털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도의 일군들은 도안의 모든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북부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벼단운반과 낟알털기를 와닥닥 다그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것과 함께 낟알털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었다.

낟알털기에서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 알곡증수의 큰 예비로 된다는것을 명심한 도안의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고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댔다.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사리원시와 송림시, 연탄군과 연산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의 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다른 군들에서도 낟알털기를 끝낸 농장들이 속속 배출되고있다.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중대결단을 내린 당의 결심을 한마음한뜻으로 지지하고 열렬히 호응해나선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한kg의 쌀이라도 더 증산할 목표밑에 맹렬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도적으로 10여개의 시, 군들의 농장들에서 낟알털기를 완전히 끝냈으며 다른 군들의 농장들에서도 농사결속소식이 자랑스럽게 울려퍼지고있다.

황해남도와 남포시에서도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대승전고를 울릴 일념안고 올해농사의 마지막총돌격전을 들이대고있는 서해지구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에 의해 낟알털기실적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 뛰여오르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다수확농작물품종 육종

량강도농업과학분원에서

농업과학원 량강도농업과학분원에서 북부고산지대에 알맞는 새로운 다수확농작물품종육종과 재배기술확립에서 좋은 연구성과들을 거두고있다.

해발 1 000~1 400m지대에서 올되면서 병견딜성이 강하고 소출이 높은 새로운 다수확감자, 밀품종들이 육종되여 해당 부문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또한 이 지역들에서 지난 시기 재배할수 없었던 강냉이, 콩품종이 육종재배되여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며 지방별, 품종별수요에 맞게 종자생산을 따라세워야 합니다.》

량강도농업과학분원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정보당 수확고가 높은 새로운 다수확감자품종육종과 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농업과학원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연구사들은 새로운 다수확감자품종을 육종할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육종중에 있는 계통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육종학적목표에 맞는 계통을 선발하기 위한 생물학적연구사업을 심화시켰다.

연구사들은 삼지연군 종흥농장 수십정보의 면적에서 3년간에 걸쳐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영농기술공정들을 맡아보면서 도입시험을 진행하여 새로운 다수확감자품종이 분원의 시험포전단계에서가 아니라 현지에서 농업근로자들의 평가를 받을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 지난 시기의 감자품종에 비해 정보당 소출이 훨씬 높고 품질도 더 좋은 새로운 다수확감자품종육종에서 성공하게 되였다. 또한 키가 작으면서도 소출이 높은 봄밀을 육종하여 고산지대에서 봄밀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였다.

분원의 연구사들은 수년간 고심어린 사색과 노력을 기울여 고산지대에서도 재배할수 있는 올되면서 수확고가 높은 강냉이와 콩품종을 육종함으로써 이 고장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력을 주고있다.

고산지대에서 강냉이, 콩품종육종과 재배기술에서 성공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농경지의 그루바꿈문제와 집짐승사료가 해결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이 거둔 연구사업결과를 보고받으시고 연구성과를 생산에 널리 도입하며 연구사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량강도농업과학분원의 연구사들은 과학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나갈 애국충정의 한마음안고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생물학적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들끓는다

각지 직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받아안은 각지 직맹조직들이 서한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직업동맹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정치적무기입니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동맹조직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서한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위원회적인 대책안을 통이 크게 세우는것과 함께 서한의 사상과 정신을 뼈와 살로 새기는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첫걸음을 기백있게 내딛고있다. 서한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직관선전물을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 아래동맹조직들에 내려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열기를 띠고 벌어지고 동맹조직들을 지도하는 일군들의 일본새와 활동방식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도직맹조직들의 활동이 전례없이 맹렬해지고있다.

함경남도직맹위원회 일군들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200일전투로 끓어번지는 주요전투장들에 나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한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잘 알려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자각시켜주는 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리고있다.

황해북도직맹위원회에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할데 대한 총적투쟁과업에 맞게 도안의 모든 직맹조직들을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만이 차넘치는 사상적순결체,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조직적전일체, 행동의 통일체로 만드는데 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 일군들은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판을 벌려가고있다. 들끓는 전투장들에 들어가 5대교양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면서 황철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직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부터 서한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 들어가 그것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서한과업관철의 열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서한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되는 소행들을 제때에 장악하고 일반화해나감으로써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청진시직맹위원회, 무산군직맹위원회, 벽성군직맹위원회를 비롯한 시, 군직맹위원회들에서도 서한의 자자구구를 뼈와 살로 새기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등 서한과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각지 직맹조직들이 들끓는것으로 하여 직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은 높아지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생산돌격전은 도처에서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정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아동단영웅의 혈육 김량남동지에게 베푸신 고귀한 사랑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의 연단에서 뜨겁게 회억하시며 높이 내세워주신 항일아동단영웅 김금순,

9살 소녀가 적들에 의하여 무참히 총살당하는 순간까지 꿋꿋이 싸운 영웅적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가 발휘한 훌륭한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주는 위대한 명맥에 대하여서는 아직 모르는것이 더 많다.

오늘 우리가 전하게 되는 전설같은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의리를 천금주고도 살수 없는 인간세계의 가장 고결한 미덕으로 일러오시며 한평생 지키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의 혁명적의리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들중 그 일단이다.

첫 인 연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량남동지를 처음 만나신것은 지금으로부터 48년전 단풍든 계절이였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친히 현관까지 마중나오시여 그를 기다리시였다.

《량남동무가 이제야 오는구만.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친근하고 다정한 음성, 순간에 온넋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따뜻하고 매혹적인 인품…

그 순간 김량남동지는 무작정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억울했던 심정을 하소하는 어린 자식처럼 울음을 터치였다.

그무렵 대학을 졸업하고 문화성에서 일하던 그는 신원이 애매하다는 리유로 어느한 촬영소 편성원으로 조동되여 주로 외부작업에 동원되고있었다.

그러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시였는지 그는 전혀 알수 없었다. 실로 가슴뜨거운 사연으로 마련된 상봉이였다.

이국땅에서 거지나 다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조국으로 나와 혁명학원과 대학을 졸업하고 문화성에서 일하던 그가 아동단원 김금순과 관련한 회상기를 처음 본것은 《로동신문》에서였다. 그는 그 김금순이 유년시절 동네사람들로부터 전해들던 자기 누이인것 같아 이를 고증해줄 연고자들을 찾아 길을 나섰다.

그런데 찾으려던 누이는 못 찾고 오히려 《민생단》의 자식이라는 감투를 쓰고 일터까지 옮기게 되여 심리적고충을 겪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파견하여 그의 경력을 재료해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료해결과는 가슴섬찍한것이였다. 김량남이 김금순렬사의 동생임은 틀림없으나 그의 아버지는 《민생단》으로 처형되였다는것을 립증하는 목격자들의 글까지 있다는것이였다.

김금순과 같은 렬사의 아버지가 절대로 《민생단》으로 될수 없다!

당장은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앞에서도 아동단렬사의 가족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의 금선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료해된 자료의 정확성여부는 김금순일가의 집안내력과 투쟁경력을 잘 아는 투사들만이 잘라낼수 있다는 확신으로 림춘추, 전창렬, 김옥순, 박영순 등 투사들로 사실자료를 확인하는 사업을 조직해주시였다.

김량남의 아버지는 혁명에 충실한 반일애국렬사이다. 이것이 투사들의 일치한 보증이였다.

한 아동단영웅의 일점혈육에 대한 숭고한 의리의 경륜이였다.

이렇게 되여 가없는 푸른 들에 아름다운 선물을 태우고 클피리를 불며 꿈속에서도 음악세계를 날으던 어제날의 소년목동이 온혈로운 태양의 품에 안기게 되였던것이다. …

《하긴 어델 가서 마음껏 울어볼데도 없었겠지. 지난날의 설음과 고통을 죄다 눈물로 쏟아놓으라구.》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솟구치는 격정을 걷잡지 못하시며 오늘은 동무를 위하여 시간을 냈는데 지난날 고생한 이야기를 다 하라고 절친하게 이르시였다.

두살때 부모를 잃고 동냥쪽박 차고 이밥, 저 밥에 걸채이며 다니던 일, 지주집소꼴이군으로 일할 때 주인놈이 하도 무서워 소잔등에 올라보지도 못하던 일, 잠잘 곳이 없어 외양간구석에서 머리파묻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면서 허리를 꼬부리고 자던 일, 굶주림에 부황이 나서 일을 못하게 되자 지주놈이 발길로 걸어차며 내쫓던 일…

쌓이고쌓인 설움은 동이 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피바다속에 모든것을 다 잃고 홀로 남은 그가 불수록 가슴아프시였다. 그 응어리진 가슴을 과연 어떻게 풀어주어야 할지 알수 없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것을 삼키시며 손수건을 자주 눈언저리로 가져가시였다.

이 눈물겨운 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후 김량남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한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정이 되여 울무렵 김량남을 차에 태우시고 평양시의 교외로 나가시였다. 김정숙동지의 묘소가 있던 나지막한 동성이였다. 12월 하순의 날씨는 여간 차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 어머님이 계시오.》

비돌앞에 술잔을 놓으시며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숙연한 말씀이 그의 폐부에 뜨겁게 파고들었다.

례일이 우리 어머님의 생신날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혼자 조용히 찾아오려고 했댔는데 문득 동무의 얼굴이 떠오르더구만. 나는 그래도 어머님이 그리울때마다 찾아볼 묘소라도 있지만 동무야 울고싶어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살면서 보니 사람에게는 이따금 마음놓고 울 곳이 있어야 하겠더구만. 우리 어머님도 연길출신이였으니 아인민의 열화같은 일편단심이 맥동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였다.

이 노래형상이 공연에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였을 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의 등을 다독여주시며 량남동무의 공로가 크다고 얼마나 희열에 넘쳐하시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그는 참으로 혈육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혁명렬사의 혈육이였고 슬하의 전사였다.

어느해 여름 일요일 점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을 위하여 시원한 국수를 마련하시였다.

일군들모두가 식탁에 앉았는데 장군님께서는 한 동무가 더 참가하게 되였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런다고, 그가 올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량해를 구하시는것이였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기다리시는 일군은 2시가 지나고 3시가 되여도 나타나지 않았다.

과연 누구이기에 시간을 지키지 않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점심도 미루시게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일군들은 은근히 언짢았다.

5시가 되여서야 헐레벌떡 나타난 일군은 김량남동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자신의 곁에 앉히시고 색다른 음식들을 접시채로 그의 앞에 놓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군이 저 동무야 오늘 우리에게 점심까지 굶긴 사람인데 벌을 줄 대신 장군님께서 왜 그를 극진히 위해주시는가고 응석을 부려 모두가 즐겁게 웃음보를 터치였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좌중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속에도 지난날 고생을 많이 한 동무들이 있지만 이 동무처럼 거지생활은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 동무는 지난날 깡통을 차고 이집 저집 문을 두드리며 밥동냥을 하여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여왔습니다. 그는 엄동설한에도 다 꿰진 헌옷을 입고 남의 집 처마밑이나 다리밑에서 쪽잠을 자면서 자라났습니다.》

가슴이 아프신듯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뒤말을 잇지 못하시였다.

《동무들이 이따금 나에게 일찌기 어머니를 잃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내가 한 고생은 이 동무가 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나는 이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가 이 동무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누나가 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이 동무를 나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장내는 갑자기 흐느낌소리로 화하였다.

김량남뿐이 아닌 자기들모두가 안겨사는 위대한 운명의 품, 태양의 품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는 행복의 눈물이였다.

이런 전사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정의세계는 참으로 세상에 있어본적 없는 혁명적의리와 사랑의 정화였다.

언제인가 3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대외활동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김량남동지는 밀린 일감을 처리하느라 며칠째 밤을 밝히며 일하고있었다.

이런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일 새벽 두세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거시여 정문에 나가 기다리게 하였다가 자신의 차에 태워 퇴근시켜주군 하시였다.

이날도 새벽 4시가 좀 지나 전화를 거신 그이께서는 하던 일을 빨리 거두고 정문으로 나오라고 이르시였다.

달리는 차안에서 그가 이제 집에 들어가도 길이 잠자지 못한다는것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럼 새벽공기를 마시다가 대동강의 해돋이나 구경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방향을 바꾼 차는 청류벽앞에서 멈춰섰다. 해돋이시간까지는 아직 몇시간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자등받이를 제쳐놓으시며 누워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시면서 량남동무도 의자등받이를 제쳐놓으라고 하시였다.

잠시후 차안에는 고요가 깃들었다. 며칠째 밀려온 졸음이 사정없이 엄습해오자 그는 어느새 잠들어버리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결에 일어나보니 날은 벌써 환히 밝았고 장군님께서는 대동강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산책하고계시는것이였다.

그는 황황히 차문을 열고 나서서 위대한 장군님께로 달려갔다.

왜 좀더 자지 벌써 일어났는가라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겨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밤밝혀 일하는 전사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하시였으면 두시간이라도 푹 재우고싶으시여 대동강의 해돋이구경을 생각해내시였겠는가.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전사였기에 장군님께서는 때로 파오를 범한 그를 엄하게 비판하시고는 본인보다 몇곱절 더 가슴아파하시였다.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불쌍히 자란 동무에서 욕을 하고나면 가슴이 아파 새벽녘에 잠간 눈을 붙이자고 하다가도 량남동무의 측은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허비군한다고, 잠간만이라도 눈을 붙여야 맑은 정신으로 일할수 있겠기에 쪽잠에 들었다가도 꿈에까지 그가 나타나 잠에서 깨여나군 한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되이신 우리 장군님,

그를 성의 책임일군으로 등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자신의 곁에 놓두고싶으시여 그는 나를 어머니처럼 따르고있다, 너무 고생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건강치도 못하다, 키기다 일욕심도 많고 정열적인 사람이니 성에 내보내면 밤낮없이 뛰여다닐텐데 누가 그의 건강을 돌봐주겠는가, 김량남은 내곁에 있어야 한다, 내가 옆에 끼고있어야 철따라 옷도 해주고 제시간에 잠도 재우고 약도 먹여줄수 있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

항일아동단영웅의 혈육인 김량남동지는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어머니의 품을 다시 찾을수 있었고 그이의 슬하에서 빨찌산정신을 만장약한 신념의 인간으로, 쉬임없이 흐르는 물에 강가의 막돌이 조약돌로 곱게 다듬어지듯 위대한 당의 참된 전사로 걸음걸음 억세게 성장하였다.

영 생 의 품

만수대예술단을 조직할 때 주역으로 참가하였고 《피바다》식혁명가극을 창조할 때에도 눈부신 활약을 한 김량남동지의 인생은 짧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혁명하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숭고한 의리의 정화에 대한 감동깊은 전설을 년대와 세기를 넘어 새겨주는 남다른 인생이였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 1월 어느날 깊은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량남동무가 이사한 집을 한번 구경하자고 하시면서 그를 앞세우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김량남동지는 짐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감기를 앓고있어 장군님을 모실수 없다고 줄곧 애원하다싶이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막무가내로 현관에 들어서시여 층계를 오르시였다.

한밤중에 아무런 기별도 없이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 그의 안해는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워 안절부절하며 허둥대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스스럼없이 잠든 세 아이의 머리맡에 앉으시여 이마를 차례로 짚어보시고 애들이 잘고 자는 요밑에 손을 넣어 구들온도도 가늠해보시였으며 차먼진 이불짓도 끄당겨 여며주시였다.

계속하여 부엌으로 나오시여 가마뚜껑을 열어보시고 찬장도 들여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웃방까지 돌아보시였다. 그리고 주부의 성의가 고인 검소한 식사도 맛나게 들어주시며 아이들을 잘 간호할데 대하여 간곡한 당부를 남기고 떠나시였다.

가정방문을 통하여 그의 검박한 살림살이형편을 속속들이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시여 부엌과 매 방의 용도와 구색이 맞는 생활용품들을 친히 놓아주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세계무대에 나가는 우리 나라 예술단인솔책임을 진 김량남동지가 출발을 앞두고있던 어느날 아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외국에 출장가는 그에게 새로 지은 옷을 입혀보시기 위해서였다.

방에는 고급양복, 외투, 와이샤쯔와 속내의, 넥타이, 고급손목시계, 신발, 갖가지 화장도구 등이 마련되여있었다.

《지금껏 명절때마다 해주신 옷만도…》

김량남동지는 뜨거운 눈물이 마냥 고여 울과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팔을 끼시고 옷들이 놓인 곳으로 이끄시였다.

《동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난생처음으로 먼 나들이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어찌 새옷 한벌 안해주겠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대신할수는 없겠지만 성의껏 마련한것이니 사양말고 어서 받으시오.》

그 자리에서 옷을 입혀 앞뒤로 돌려세워보시고 색갈도 가늠해보시는 장군님의 사려는 여간 세심하지 않으시였다.

북받치는 격정을 걷잡지 못하여 눈물만 가량없이 흘리는 전사의 얼굴을 손수 닦아주시며 올면 새옷에 얼룩이 간다고 달래이시기를 그 몇번…

다음날 김량남동지의 집을 다시 찾으시여 어제날의 고아가 오늘은 이렇게 가슴을 펴고 국제무대에 나간다고, 일찌기 부모를 잃고 의지가지할데없이 떠돌던 량남동무가 오늘은 한 나라 예술단을 이끌고 하늘을 날게 되였다고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비행장까지 바래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사랑하는 전사가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국하는 날 몸소 비행장에 나오시여 외국에 가서 수고한 동무들이 돌아오는데 눈도 깨끗이 치고 맞이하자고 하시면서 찬바람 몰아치는 비행장구내에서 옷자락을 날리시며 오래도록 기다리신 우리 장군님의 그 뜨거운 정의 세계를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으로 하여금 흐르는 세월속에 또 한명의 혁명전사가 성장하는 비길데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한 김량남동지가 어느날 깊은 밤 극장계단을 내려오다 쓰러진것은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완성을 눈앞에 둔무렵이였다.

현지의 일군들이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그는 자기를 전화기곁으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였다.

매일 그에게 전화를 거시여 혁명가극창조정형을 알아보시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현지에 나오시여 풀어주시며 깊은 밤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실 시간이였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방안에 들어서자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하루창조정형을 보고드린 다음 그는 또 배를 그러안고 쓰러졌다.

며칠후에는 의식까지 잃고말았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즉시 의료부문의 책임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량남동무의 병이 중병이 틀림없는것 같은데 급히 병원에 가서 그에 대한 진단과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다시 와주어야 하겠다고 다급히 이르시였다.

일군이 떠난 다음에도 그이께서는 마음이 못내 불안하여 그냥 서성거리시였다.

그 일군이 다시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나를 위안한다면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나는 참기 어렵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몹시 흥분된 어조로 일군을 다부르시였다.

세계적으로 볼 때 8차례의 수술을 하여 1년정도 생명을 연장시킨 실례가 있는 불치의 병이라는것, 이제 몇달밖에 생명을 유지할수 없다는 사실을 일군은 솔직히 보고드리였다.

순간 위대한 장군님의 안색은 대번에 어두워지셨다.

《량남동무는 당에 아주 충실한 동무입니다. 지난날 처지를 잊지 않고 일을 잘한 동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이도 다 가고 그는 지금 이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믿는것은 오직 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겠습니까?》

긴숨을 몰아쉬며 안타까워하시는 그이의 말씀이 일군의 심장을 아프게 하였다.

《돈을 아끼지 마시오.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사오도록 하시오. 나는 의사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수십명의 유능한 전문가들로 강력한 치료집단을 꾸려주시고 효능높은 약들을 구입해들이도록 하시는 한편 그 의료일군을 제약공업이 발전했다는 나라들로 급파하시였다.

김량남동지의 치료는 말그대로 전투였다.

그가 첫 수술을 받게 된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원의 당책임일군에게 최선을 다하여 수술을 성과적으로 함데 대한 탕적분공을 주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을 병원에 보내시여 수술림회를 하도록 하시였다.

김량남동지의 치료정형은 위대한 장군님께 매일 첫번째로 보고되는 자료였다.

예상외로 수술이 잘되여 그가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저택온실에서 키운 수박과 도마도를 손수 따서 보내주시고 병이 호전되여가자 생활환경을 바꾸어 아이들과 며칠간 함께 있으면서 산보도 하고 극장관람도 하며 가벼운 운동도 하라고 몸소 일과표도 짜주신 어버이사랑,

사랑하는 전사의 모습이 눈에 삼삼하여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김량남동지의 집을 찾으시고 가족과 함께 혁명가극관람을 간 그를 기다려 점도록 마당을 거니신 얼의 위인,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보내주시고도 한가지 약을 써보지 못했다는것을 아시자 즉석에서 비행기를 띄워 그 약제를 사오도록 하신 한량없는 정의 세계…

8번째, 9번째, 10번째 수술은 이런 류례없는 사랑속에 진행되였다.

11번째 수술을 앞두었지만 의료일군들은 차마 그 말을 입밖에 낼수 없었다. 몸에 수술칼을 댈 자리조차 없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미어지는듯한 아픔을 누르시면서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량남이가 정말 불쌍해. 그 연약한 몸에 열번이나 칼을 댔는데 또 수술을 하자니 가슴아파 못 견디겠소.

그렇지만 수술은 해야 하오.》

의료일군들도 가족들도 목메여 오열을 삼키였다.

11번째 수술을 앞둔 날 그는 안해에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불사조》를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빨찌산정신으로 그처럼 어려운 수술을 또다시 이겨냈다.

그는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린 때로부터 거의 2년동안이나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였다.

《금순누이를 생각해보오. 누이는 9살을 넘기지 못했지만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서 그 네배를 살았소. 나대신 아이들을 잘 키워 우리 가문에 금순누이같은 혁명가가 또 나오게 해주오.》

이것이 그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체온이 그대로 슴배인 목음기를 그러안은채 림종의 시각 안해에게 남긴 마지막말이였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별이 웃을 때
따사로운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

노래가 끝나자 목음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육성이 울리였다.

《량남동무, 치료 잘해야 해. 병이 나아 퇴원하면 나하구 낚시질을 가자구. 내 가물치를 잡아서 회를 쳐주지. …》

그날은 주체63(1974)년 4월 18일이였다.

자신을 친부모처럼, 누이처럼 믿고 산 그를 잃은것은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비길데 없는 상실의 아픔이였다.

11번째 수술을 하고나서 그의 생이 얼마가지 못한다는것을 예감하고계시였지만 정작 당하고보니 참으로 이겨내기 어려우시였다.

그이의 눈언저리는 붉게 젖어있었다.

《내가 량남동무에게 줄수 있는 사랑을 더 주지 못한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

작일수 없는 슬픔으로 인한 그이의 자문인줄 일군들이 어이 모르랴.

그들은 천만부모도 대신할수 없는 김량남동지의 남다른 인생의 행운을 뜨겁게 추억하며 장군님을 여러모로 위안해드리였다.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쩐지 평소에 량남동무의 부모를 대신하여 더 줄수 있는 사랑을 주지 못한것만 같습니다.》

혈육처럼 사랑하신 전사를 잃은 상실의 아픔에 너무도 괴로우시여 그날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뜻밖들만 총총한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새날이 밝아오도록 집무실창가를 떠나지 못하시고 사랑하는 전사와 하염없이 흐르는 피눈물로 영결하시였다.

* *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혁명적의리의 세계였다.

사랑하는 전사는 떠나갔으나 전사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마를줄 모르는 샘이였고 그의 생시나 다름없이 강렬하고 극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설날 아침이였다.

이날 김량남동지와 함께 일하던 일군들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량남동무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였다고, 김량남동무가 세상을 떠난 다음 우리는 벌써 두번째 설을 맞는다고, 그동안 아이들은 잘 자라는지, 살림을 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동무들이 설명절을 계기로 한번 찾아보고 오라고, 지금쯤은 아마 아이들도 명절을 쇠러 집에 와있을것이라고 하시며 못 잊을 전사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 일군들을 그의 집으로 보내시였다.

그의 안해와 자녀들을 당학교, 혁명학원, 대학으로 보내주시고도 해마다 설날이면 설날이여서, 명절때면 명절이여서 온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남편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것과도 같은 어버이장군님의 정겨운 말씀을 전해들으며 온 가족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그이의 웅심깊은 보살피심이 있어 그의 안해와 자식들은 한해가 시작되는 뜻깊은 설날마다 남편과 아버지의 정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였고 위대한 의리의 세계에는 끝이 없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터득하였다.

수도에 현대적인 고급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섰을 때에는 김량남동지가 남기고 간 혈육들을 생각하시여 선참으로 배정해주도록 하시고 값비싼 피아노가 생기여도 클피리를 불던 어제날의 목동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지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라고 보내주신 다심한 사랑,

김량남동지가 우리곁을 떠난지도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그와 책상을 마주하고 일하던 동지들의 기억속에도 점차 사라져가고 부자간, 부부간의 정도 한걸음한걸음 멀어져가는 고인을 정녕 잊을수 없으시여, 무엇인가 더 안겨주고싶으시여, 사랑하는 전사를 추억속에 영원히 간직하고싶으시여 일일년년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

그의 안해가 60번째로 생일을 맞을 때에는 생일상을 크게 차려주시고 딸의 결혼식때에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결혼상을 보내주신 한량없는 사랑,

그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로 항일혁명렬사추모비가 애국렬사릉에 건립될 때에는 거기에 김량남동지의 아버지인 김태규와 누이인 김금순의 이름을 나란히 올려주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인간세상에 의리의 력사가 생겨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던가.

하지만 그 의리의 세계에서 피를 나눈 혈육도 아닌 아동단렬사의 동생, 혁명의 준엄한 폭풍시절 가난과 수모에 울던 고아를 품에 안아 혁명적사랑과 의리로 영광과 행복, 영생의 최절정에 올려세워준 그런 력사와 전설이 있었던가.

그것은 이 땅우에 혁명과 인간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동지애의 화원을 가꾸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의리의 정화였다.

그 위대한 품이 있어 그이의 슬하에 신념과 의지로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위대한 당의 두리에 산악같이 뭉친 천만의 일심단결의 대오가 도도히 굽이치고있는것이다.

항일아동단영웅과 그의 혈육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 의리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욱 온혈롭고 영원한 믿음과 사랑으로 대를 두고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량남동지의 손녀를 영광의 대회에 불러주시고 자신의 가까이에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위대한 사랑, 혁명적의리로 빛나는 40여년!

불보다 뜨거운 심장으로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력사가 있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과 혁명적의리로 하여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혁명은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당세포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 부강조국건설에 힘있게 다그치자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구호이며 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입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는 당세포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를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당세포로 만들며 그 영예를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우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당세포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잘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당세포들에서 충성의 당세포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주, 월,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게 했다. 이 사업을 깜빠니야식으로가 아니라 일관성있게 밀고나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매주 초급당위원장들과 직속단위 당세포위원장들의 주사업총화에서 충성의 당세포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결의목표집행정형을 료해하고 총화하는 사업을 제도화하였다.

특히 조직부 일군들의 역할을 중시했다.

조직부 담당지도원들의 하부지도사업요강과 월사업계획에 충성의 당세포대렬을 늘여나가기 위한 내용을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한 다음 도와준 정형과 나타난 편향을 매달 총화하는 사업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조직부 일군들이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당세포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주도적역할을 다하게 했다.

다음으로 당위원회일군들이 당세포에 직접 들어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면서 당세포를 도와주도록 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이를 위해 당위원회는 부부장이상 일군들로 분담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담당한 당세포에 내려가 도와준 정형을 매달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을 세워나갔다.

당책임일군이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7월 담당한 북창탄부오리공장 관리당세포에 내려가 충성의 당세포의 영예를 지니기 위한 결의목표수행정형을 료해하면 당위원장 김영훈동무는 랭동설비가 불비하여 생산한 오리고기보관과 공급에서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해당 일군들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대책을 토의한 당책임일군은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일에 어깨를 들이대였다. 그 과정에 10t보관능력의 현대적인 랭동설비가 설치되여 신선한 오리고기를 단부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당책임일군의 실천적모범은 당위원회일군들로 하여금 언제나 마음을 당세포에 두고 세포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주도록 추동하였다. 이 과정에 지난해에만도 련합기업소적으로 10개의 당세포가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올해에만 해도 인포탄광 1갱 채탄3중대 당세포를 비롯한 9개의 당세포가 충성의 당세포기준에 도달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편지를 올리였다.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당세포로 만들며 그 영예를 빛내여나가자면 당세포위원장들이 어머니다운 품성을 지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위원회가 이 사업을 중시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지난해 7월 충성의 당세포쟁취를 걸기한 인포탄광 3갱 채탄2중대에 내려가 당원들의 당생활정형을 료해하던 당위원회 부위원장 최성남동무는 한 채탄공이 이러저러한 일로 사람들의 말밤에 오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문제로 된것은 당세포위원장이 이에 대하여 별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그와 자리를 같이한 당위원회일군은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한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온 나라에 울려네라는 뜻깊은 구절이 있는데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세포위원장들이라고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당세포위원장과 함께 그 채탄공의 가정에 찾아가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풀어주었다.

이런 사업은 그에게 세포위원장이 당원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될 때 그들을 우리 당과 혈연의 정으로 굳건히 이어지게 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했다. 이것이 불씨가 되여 세포위원장들속에서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는 사업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당세포위원장의 수준이자 당세포의 전투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큰 몫을 돌렸다.

앞선 단위인 남력탄광을 본보기단위로 정하였다. 이 사업을 주관부서나 몇몇 일군들의 사업이 아니라 조직부와 선전선동부와의 배합작전의 방법으로 전개해나갔다.

이에 따라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련합기업소 직관원과 함께 5대교양직관관을 인식교양식의의가 있게 만들기 위한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여 얼마후에는 5대교양직관관이 세포위원장학습실에 게시되였다.

조직부 일군들은 탄광초급당위원회가 세포위원장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해나가도록 하나하나 떠밀어주었다.

당위원회는 남력탄광 초급당위원회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현지에서 조직하였다. 실효가 있었다. 당조직들에서 세포위원장학습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던것이다.

당책임일군들이 세포위원장의 날에 직접 출연하여 당세포위원장들의 당사업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나갔다.

당세포위원장들이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가운데 인포탄광은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화력탄보장단위들에서 가장 앞선 탄광으로 이름을 떨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충정의 200일전투에서도 앞장서 달리게 되였다.

련합기업소가 충정의 200일전투목표수행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있는것도 자랑이지만 모든 당세포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거치를 틀고나가게 된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성과중의 성과이다.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과업도 무서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 바로 이것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힘찬 진군길에 나선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찾은 경험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금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세포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당은 전당이 당세포를 도와줄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금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과 인민의 혈연적뉴대를 공고히 하며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당의 말단기층조직이며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인 당세포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용철동무가 이곳 군당위원장사업을 갓 시작했던 때의 일이였다.

전반실태를 먼저 파악한 그는 강남협동농장 제2작업반을 자주 찾았다. 군당책임일군에게는 타산이 있었다.

군사업에서 농사가 제일 문제였다. 여러 협동농장들의 알곡수확고가 높지 못하고 따라서 군적인 알곡생산계획수행이 미달되고있었다.

일군들은 농사조건이 불리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있었다.

군당책임일군은 전해를 탈피하였다. 영농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리당조직들의 전투력 특히 당세포들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강남협동농장 제2작업반에 자주 내려가 당세포사업을 료해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무엇보다도 당초급일군의 실무수준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미처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주관적으로는 많은 일감을 안고 뛰여다니느라고 하지만 당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사업, 군중을 발동하는 사업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여 농업생산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었다.

군당책임일군은 제2작업반 당세포사업을 통하여 본보기를 창조할 결심을 하고 현지에 자주 내려갔다. 당세포위원장의 집에서 묵으면서 사업의 우결함을 지적해주기도 하고 회의에서 하는 당원들의 토론도 들어보면서 당세포사업의 중심고리를 바로 틀어쥐는 문제, 혁명과업수행에서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할수 있게 당적분공을 주는 문제 등을 세심히 일깨워주었다. 당세포위원장의 사업에 도움이 될 참고서들도 구해주었다.

배워주고 도와주는것만큼 절실이 났다.

당세포위원장의 사업기풍과 일본새가 달라졌다. 당세포사업이 씨지히 기본혁명과업인 농사를 적극 떠밀어주는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당원들이 앞장선 가운데 작업반원들의 정신력이 무섭게 분출되였다.

기계수단타발을 하며 미루어오던 3.5정보의 토지개간을 자체의 힘으로 해냈으며 많은 토량을 처리하면서 저류지를 훌륭히 보수하였다. 3개의 굴포도 짧은 기간에 마련하였다.

리당일군들이 당세포들에 대한 지난 시기 지도사업과정을 자책속에 돌이켜보게 되였다. 군당위원회 해당 일군들도 마찬가지였다.

때로 당세포들에, 당원들속에 들어간다고 하였지만 제기된 문제나 알아보면서 소방대식으로 일했던것이다.

군당책임일군은 강남협동농장 제2작업반 현지에서 각 협동농장 당일군들과 당세포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그후 당세포위원장들을 배워주고 도와주는데서 좋은 싹들을 찾아 일반화하는 사업도 적극 따라세웠다.

당세포위원장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이 맹활약하니 당세포들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산림경영소의 한 당세포를 비롯한 당세포들이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들어섰다. 군의 농업생산실적이 오르고 지방산업공장들의 면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보란듯이 건설하여 지난 70일전투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군에서 200일전투에서도 련일 새 기적을 창조하고있는것도 당세포중시가 안아온 뚜렷한 결실이다.

금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당세포를 도와주는것만큼 절실이 크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혈육의 정을 안고 대중속으로

문천시 남창리당위원회에서

당세포는 당정책관철의 척후대, 말단전투단위이다.

이렇듯 중요한 위치에 있는 당세포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를 문천시 남창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통해 보기로 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비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젖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을 바쳐야 합니다.》

온 농장이 낟알털기전투로 들끓고있던 지난 10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 리당위원회로 향한 도로를 따라 걸음을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농산제1작업반의 작업반장과 당세포위원장이였다.

탈곡장에서 작업반원들과 함께 낟알털기에 어념이 없던 그들이 리당위원장이 급히 찾는다는 련락을 받은것은 방금전이였다.

아마 당면한 낟알털기와 관련한 긴급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일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리당일군이 제기한 문제는 그들의 예상을 뒤집어놓았다. 작업반원들의 가정방문과 관련한 문제였던것이다.

의아해하는 그들에게 리당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바로 그날 점심시간에 있은 일이였다. 농산제1작업반 마을을 지나던 리당일군은 한 농장원의 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가정을 돌보는 농장원이 동생과 함께 살고있는 집이였다.

리당위원회와 작업반 당세포에서 관심을 돌린다고는 하지만 어설픈 점들이 마당이며 방안, 부엌 등 집안팎의 여기저기에서 그의 눈에 보였다.

리당위원장큰아버지가 왔다고 팔에 매여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대할수록 자책감은 더욱더 커졌다. 모임때마다 농장원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자고 말은 하면서도 실지 당세포위원장들이 친어머니의 정을 안고 농장원들속으로 들어가도록 실속있는 지도를 따라세우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며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농장원의 집을 나섰다. …

리당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지난 기간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물론 부모없는 농장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작업반원들을 위해 당세포가 진행한 일은 적지 않았다. 살림집건설과 수리, 텔감보장…

그러나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친혈육의 정이 부족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자책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한 리당일군의 말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물론 알곡증산전투도 중요하다. 허나 이런 매일수록 우리 일군들이, 모든 당세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바로 진정이다. 대중의 마음속에 혈육의 정을 쏟아부을 때 알곡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이 일어난다는것을 명심하자.

이를 계기로 리안의 모든 당세포들에서는 친혈육의 정으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더욱 심화되게 되였다. 그것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한층 북돋아주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백배로 더 강하게 해주었다.

뜨거운 진정, 열렬한 사랑을 안고 대중속으로 들어가자!

이러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모든 당세포들이 일을 전개해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는 남창리당위원회의 사업은 좋은 결실로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한영철

당결정은 우리의 생명

구성공작기계공장 단조직장 압연작업반 당세포에서

오늘의 200일전투에서 당원들의 심장은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 여기에 대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각급 당조직들, 특히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성공작기계공장 단조직장 압연작업반원들은 뜻밖의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다. 방금전까지도 시뻘겋게 달아오른 강재를 련속 뽑아내던 압연기가 동음을 멈추었던것이였다. 압연롤이 마모되여 필요한 규격의 강재를 생산하기 어렵게 되였다.

새 롤을 만들어 교체하자면 출장이 보름은 걸릴것이였다. 닳아진 부위에 용착을 하고 재가공을 한다고 해도 열흘이라는 기간이 필요됐다.

압연작업반 당세포 당원들은 야속한 눈길로 압연기를 바라보았다. 하루가 아니라 한시간이 새로운 때에 선행공정인 압연작업이 열흘간이나 지연된다면 공장이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수행하는데서 큰 지장을 받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였다.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당세포위원장 허영철동무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긴말은 하지 않겠소. 다만 강조하고싶은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재를 중단없이 보장해야 한다는거요.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는것은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 채택한 당결정이요.》

당세포위원장이 힘주어 강조한 당결정이라는 말이 당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당장 이렇다할 방도를 내놓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하여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서리였다.

이때 작업반장인 장영일동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여기 압연작업반 당세포에서 당생활을 한지도 20여년세월이 흘렀소. 그동안 당세포의 당원들은 많이 바뀌였으나 우리 당세포는 단 한번도 당결정을 집행하지 못한적이 없었소.》

그는 자기의 가슴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다. 방도는 이 심장속에 있다고,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압연롤을 해체하여보면서 방도를 찾아보자고.

그의 락관에 넘친 모습은 당원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압연롤을 해체하면서 방도를 모색하던 끝에 기발한 착상이 나왔다. 롤의 매달밑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웃롤과 아래롤사이의 편차를 줄여보자는것이였다. 역시 오랜 압연공인 작업반장이 다르다고 모두들 혀를 차며 작업에 달라붙었다.

중요한것은 보강할 재료의 두께를 확정하는것이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또 한번 반복작업을 해보면서 그들은 끝내 적중한 두께를 확정하였다. 롤의 매달밑을 보강하고나서 곧 시운전을 해보았다. 긴장한 눈빛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롤이 소재를 물고 정상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압연기의 동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한 그때는 새벽 2시였다.

공장이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그날의 5시간의 전투소식은 충정의 전투기록장에 이렇게 새겨졌다.

《…이렇게 열흘을 5시간으로 단축하였다. 그들의 기발한 착상은 단순히 두뇌의 산물이 아니였다. 당결정을 생명으로 간직한 당원들의 불타는 심장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본사기자 김순영

당보학습을 잘하고있는 평양방직기계공장과 평양고무공장 로동계급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산목장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산목장을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가 4일에 진행되였다.

도와 목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목장초급당위원장 리상원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5(2006)년 11월 5일 새로 일떠선 원산목장을 찾으시여 도자체의 힘으로 목장을 훌륭하게 건설한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목장종업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목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축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과 그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강원도의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목장이 지난 10년간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번식시켜 마리수를 늘이였으며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더 조성하여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방목과 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증체률을 계통적으로 높이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여러가지 효능높은 주사약과 예방약 등을 자체로 만들어 수의방역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새로운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고기와 젖가공품생산을 훨씬 늘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축산기지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목표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고기와 알생산을 빨리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집짐승종자들을 연구개발하고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고기와 젖가공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영양가높은 먹이풀들을 재배하고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고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은정어린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며 영광의 일터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축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결사관철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금성정치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금성정치대학창립 70돐 기념보고회가 4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와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당간부양성기관, 관계부문, 대학일군들, 교직원,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금성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사로운 손길과 각별한 보살피심속에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여온 금성정치대학은 청년정치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을 종합적으로 키워내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간부양성기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찌기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청년핵심육성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청년간부양성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여 주체35(1946)년 11월 5일 금성정치대학의 전신인 중앙청년간부학교를 창립하여주시고 커가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간부양성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게 하시였으며 몸소 대학을 찾으시여 교수교양사업과 관리운영을 개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의 명칭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흠모하여 지어올린 불멸의 존함을 모시도록 크나큰 신임을 베풀어주시였으며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새 교사를 건설하여주시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거듭 보내주시면서 대학이 청년동맹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을 키워내는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금성정치대학이 걸어온 70년의 연혁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근로단체일군양성방침과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관록있는 교육력량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 청년동맹과 근로단체조직들의 강화발전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믿음직한 청년정치일군, 근로단체일군들을 양성해낸 자랑스러운 공적이 새겨져있다.

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간부양성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청년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축하문은 대학의 교원들과 일군들이 교수내용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실효성있는 교수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을 실력가, 실천가형의 일군들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학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강의실들의 다기능화를 실현하고 교육행정사업과 교수사업의 정보화, 현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학사업전반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대학의 청년학생들이 당간부양성기관의 청년핵심담게 최전연초소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집단탄원하는 소행을 발휘하고 야간지원돌격대활동과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려 김일성, 김정일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금성정치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근로단체일군양성사업에 일심전력하였으며 우리 당의 청년맹장부대, 근로단체조직들의 핵심골간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학장 김인규의 보고에 이어 부학장 신광철, 강좌장 오승기, 부장 전용국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할 청년정치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을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대학창립 7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보살피심속에 금성정치대학의 교원, 일군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수행과 청년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대학의 교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간부양성방침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는 수백종의 도서와 교재, 참고서들을 집필출판하여 교수교양사업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수분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타래치는 불속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한 수령결사옹위의 전형들과 성스러운 백두대지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인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창조한 청년돌격대 지휘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졸업생들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시대의 영웅으로, 선구자들로 자라났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교수, 박사를 비롯한 학위학직소유자들로 교육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일신시켜나가는 과정에 대학이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모든 성과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교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강령과 내용,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대학안에 학습열풍이 일어번지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일군, 결사관철의 실천력을 지닌 최소리나는 일군으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교직원, 학생들의 사업과 생활조건, 학습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과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보고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의 교육과학성과전시장 등을 돌아보았으며 교원, 학생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정보기술

제27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정보화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제27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과학기술전당을 찾았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프로그람기술발전에 이바지하여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는 오늘 첨단돌파전의 거세찬 불길속에 과학기술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로 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의 명칭을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로 바꾸며 해마다 진행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여기에는 선군혁명령도로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나 전시회에 출품되였던 프로그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나라의 정보기술 특히 프로그람기술발전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정보기술부문의 첨단돌파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하루빨리 우리 나라를 정보산업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세울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피심, 온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열린 이번 제27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에는 나라의 정보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천수백건의 가치있는 정보기술성과들이 전시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일군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결정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뜻깊은 올해를 총정의 200일전투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에서 열린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는 전례없이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우리는 전시회장입구에 위치한 정보통신기술성과전시대에로 향하였다.

현대적인 우리 식 통신설비들이 꽉 들어찬 전시대를 바라보며 참관자들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통신현대화이자 국산화이라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고정전화통신의 국산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쏘프트중심교환기를 훌륭히 개발해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있다는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통신산업연구소 연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였다.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의 성과도 참으로 자랑할만 한것이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정보통신설비들의 국산화가 실현되고있는 자랑찬 모습이 도관에 펼쳐져있었다. 통신장치연구실 실장 조명철동무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군과 리들의 정보통신망을 현대화하는데서 필요되는 설비를 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설비로 대부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1 000회선급가입자접속관문, 128회선급가입자접속장치, 수자식구내교환기, 수자식전송설비들, 3층자료교환기 등 체신부문에서 요구되는 수십종의 국산화한 통신설비들의 목록과 출품된 10여종의 정보통신설비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더욱 끌었다.

IP망에서 상사식전화가입자들의 음성전화와 모뎀통신을 실현하는 시, 군급통신교환설비인 1 000회선급가입자접속관문과 같이 대용량의 IP전화교환설비를 개발하고 실용화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모방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체계설계로부터 조종기관, 장치들의 설계제작도 우리 힘으로, 조종프로그람개발도 우리 기술로 해냈다니 우리의 놀라움은 더욱 컸다.

연구소가 이룩한 보다 큰 성과는 수자식텔레비죤방송중계기인 DVB-T2변조기를 연구개발해낸것이였다. 텔레비죤방송부문에서 수자식텔레비죤방송을 전국에 확대하고 교화질중계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빛나게 관철한 긍지와 자부심이 개발자들의 얼굴마다에 비껴흐르고 있었다.

이어 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전시대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그람개발에서 주목되는 성과의 하나인 라선화상제구성프로그람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이 프로그람은 라선식련속촬영으로 동시에 얻어지는 여러층의 단면화상들로부터 인체의 2차원 및 3차원적인 구조를 고속으로 재구성할수 있게 하는 첨단수준의 프로그람이다. 연구집단은 인체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도 고화질의 화상을 얻어낼수 있게 하는 저선량화상제구성도 프로그람적으로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프로그람은 보건부문에서 광범히 리용되는 콤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우리 식으로 설계제작하며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CT개발기술의 령역을 확고히 틀어쥐게 되였다.

참으로 귀중한 성과를 안아온 전자공학부 생체전자공학연구실의 연구집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우리는 통합생산체계개발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대들에로 향하였다.

전력공업성전시대앞에서 걸음을 멈춘 참관자들에게 전력정보연구소 연구사 라지성동무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에 대하여 해설해주었다.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올해초부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력공업성과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강력한 연구집단들이 동원되여 짧은 기간에 커다란 개발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과정에 온 나라의 수력, 화력발전소들, 변전소들과 도, 시, 군송배전단위들을 하나의 망으로 련결하여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졌다. 이에 기초하여 이미 마련된 지역단위전력관리체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료통신망구성에 선진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실시간적으로 감시조종할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1차, 2차변전소들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소비단위들에서의 전력소비량도 실시간적으로 감시조종할수 있게 되였다.

하여 국가적인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출수 있게 되였으며 나라의 전력계통을 안정시켜 질좋은 전기를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보다 중요하게는 앞으로 유연송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통합생산체계구축을 위한 첨단기술을 확고히 자기 손에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것이라면 그 어떤 대상과제도 맡아안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해내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놀라운 실력과 불타는 충정, 열렬한 애국심은 전력공업성전시대뿐아니라 전시회장을 뒤덮은 수많은 통합생산체계개발성과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성과자료들을 깊은 감동속에 살펴보며 참관자들이 이른 곳은 국가과학원전시대였다.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첨단돌파전에서도 만리마속도로 내달려 100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통합생산체계와 공정자동화체계구축에 절실히 요구되는 수십종의 공업용정보기술제품들을 첨단수준에서 국산화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표준신호변환기와 신호격리기들, 원격자료획득모듈들, 공업통신모듈들, 망통신기반 자료획득모듈들, 전력전자장치들, 레드헌시장치 등 전시대에 주런이 놓여있는 첨단정보기술제품들을 경탄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소장 최성동무는 정면에 현시장치가 달린 덩지큰 설비를 가리키며 이것이 통합생산체계구축을 위한 공정조종반인데 이번에 출품한 공업용첨단정보기술제품들이 바로 이 조종반안에 다 들어가있다고 하는것이였다.

프로그람론리조종기(PLC)를 비롯하여 이전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장치들이 확고히 우리의것으로 된것이다. 이제는 통합생산체계개발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해결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우리 식으로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는 긍지와 확희가 참관자들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높뛰게 하였다.

정보봉사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었다.

자료관리의 무인화를 실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말씀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자료구축공정관리체계에 무인화기능들을 새롭게 개발도입함으로써 종전보다 자료구축에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로, 로력은 30분의 1로 줄일수 있게 되였다.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자료관리의 무인화수준을 90%이상으로 높여 과학기술전당에 수집되는 모든 자료들을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전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료들이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겠다는 개발자들의 한결같은 결의도 참관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관자들의 마음속격동은 더욱 커만 갔다.

놀라운 성과는 비단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만 이룩되는것이 아니였다. 리원장공장의 현대화, 정보화성과를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공장에서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실험기구공정자동화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장생산의 불련속적인 전반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동승강기와 자동증자가마, 다기능무인대차와 어미대차 등 자동화된 설비들과 각종 수감부들, 수행기구, 조종체계, 무선통신체계를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전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 제작도입하여 높은 수준의 통합자동화체계를 구성하였다. 전반공정의 기계체계와 조종체계들을 국산화한 이 공장의 당면목표는 통합생산체계구축과 무인화이다.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은 이렇게 과학기술로 무장한 자강력의 강자들에 의하여 벌써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이뿐이 아니였다.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소와 라선시수출입품검사검역소의 일군들을 비롯하여 국가품질감독위원회와 산하단위의 많은 일군들속에서 실용화할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기술성과들이 이룩되고 대동강외교단회관 로동자 김지성동무가 우리 식의 지열압축기조작체계개발에서 한층 단단히 맡아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이룩된 수많은 정보기술성과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정보기술성과들도 수많이 출품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에서는 화학공업에서 대표적인 공정인 정류공정에 대한 조작실험을 콤퓨터로 모의하는 실험지원프로그람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각이한 조건속에서 현실에서와 똑같이 조작할수 있도록 공부한 가상실험실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탑내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열력학적과정과 물질이동과정을 직관적으로 관찰할수 있어 실지 실험을 진행할 때보다 학생들의 인식능력과 기술기능수준이 훨씬 향상되고 실험에 드는 전기와 원료, 시약을 절약하고 망비를 없앨수 있게 하였다.

특히 고분자화학공학부 학생인 오남성동무가 개발한 시험지원체계프로그람은 실기가 위주로 되고있는 콤퓨터과목시험에서 리론과 함께 그에 대한 원리적인식능력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을뿐아니라 평가정확도가 매우 높은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이 시험지원체계프로그람에서는 시험시간도 여러가지로 설정하며 문제들에 대한 접수비중도 달리할수 있어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교원이 콤퓨터과목만이 아니라 임의의 과목에 대하여 시험문제를 여러가지 류형별로 편집할수 있도록 되여있는것도 좋은 점이다. USB키억기를 리용하여 학생들자체로도 자기 실력을 평가할수 있다고 한다.

금성학원전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이곳 일군으로부터 20여건에 달하는 성과들이 전시되였다는데 대하여 알게 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것은 완구용자동차들사이의 축구경기장면이였다.

이를 위하여 이곳 학생들과 교원들이 만들어내놓은 자동차축구경기체계지원프로그람은 한마디로 종합적인 실험실습체계와 같았다. 인공지능에 의한 경기체계를 실현하는데서 콤퓨터에 의한 장치관리방법과 카메라에 의한 화상입력과 인식방법, 경로탐색 및 최량조종방법 등을 습득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학생들뿐아니라 전시회참가자들과 각지 정보기술전문가들의 특별한 관심사로 되였다.

배운 내용들을 응용과 창조적인 실천과정을 통하여 공고히 하는데서 효과성이 큰 이 프로그람개발자가 바로 나어린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주었다.

당이 마련해준 정보기술인재육성의 정연한 체계속에서 정보산업시대의 미래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다.

돌아볼수록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과학기술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더 높이 솟구쳐오르는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이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이번 전시회는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의 정보기술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나라의 프로그람기술, 정보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림에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프로그람개발강국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보다 힘찬 전진의 발걸음을 내짚도록 고무추동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강혈웅

제47차 예술인체육대회 진행

【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제47차 예술인체육대회가 4일에 진행되였다.

영화예술, 무대예술, 예술교육부문으로 나뉘여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륙상,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이 있었다.

우리 당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이 응축된 인민의 체육전당 김일성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는 참가자들의 기쁨과 랑만이 경기장의 곳곳에 차넘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박춘남문화상, 인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 부문, 문화예술부문의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들, 교원, 학생들이 경기를 보았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 과감히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는 전투적인 창작공연활동으로 온 나라에 승전의 노래로성을 힘차게 울려온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정으로 하여 체육대회는 시작부터 환기를 띠였다.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우리 당의 대중체육방침을 받들고 예술창조의 나날에 꾸준히 련마하여온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잘 보여주었다.

선수들이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며 서로 승부를 다투는 구기종목들과 각종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국방체육경기, 윷놀이, 말목매고달리기를 비롯한 유희오락경기들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무대예술부문팀과 예술교육부문팀의 바줄당기기 결승경기는 체육대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마음과 힘을 합쳐 바줄을 힘껏 당기며 팀의 단결력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선수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함성을 올리는 관람자들의 열기띤 응원이 장내를 들썩다놓았다.

기세를 돋구며 승부를 겨룬 두 팀간의 경기에서는 무대예술부문팀이 이겼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예술교육부문이 종합 1등을 쟁취하였다.

제47차 예술인체육대회는 혁명적인 창작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은시대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전투적기백과 앙양된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전국체신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체신부문과학기술발표회가 1일부터 4일까지 사리원시에서 진행되였다.

각 도체신관리국, 체신성산하공장, 기업소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 20여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교원, 연구사, 3대혁명소조원,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는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체신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통신의 신속성,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30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제출되였다.

론문발표와 체신과학기술발전의 현 추세에 대한 강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나라의 체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과학연구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고 도입일반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대규모쏘프트교환기의 료금관리체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무선방송기 종합측정 및 원격관리체계》, 《전송종합망관리체계》, 《통신망순회기록장치》 등의 론문들이 체신과학기술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론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6일(일요일) 오전에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활쏘기대항경기가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에서 진행된다.

웰남신문 《년전》대표단 귀국

딩 뉴 환 부총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신문 《년전》대표단이 4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두번다시 태여났습니다

제가 심장병으로 의식을 잃고 김만유병원에 실려온것은 지난 9월초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때 저의 생명은 시시각각 마지막계선에 이르고있었습니다.

즉시 고혈압과 과장 라현수선생님과 담당의사 리승호선생님은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면서 수시로 저의 혈압과 맥박, 호흡상태를 관찰하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소생담보는 없지만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보건일군의 자세로 헌신하는 이들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저는 3시간만에 다시 소생되였습니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위하여 긴급협의회는 그 몇번,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검사는 또 몇번이였겠습니까!

입원기간 명절과 휴식일이 따로 없이 한시도 저의 곁을 떠나지 않은 의사선생님들과 온갖 성의를 다한 간호장, 간호원동무들의 수고를 펀지에 다 담을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퇴원후에도 리승호선생님은 수시로 건강상태도 알아보고 치료대책을 세워주었으며 특별히 마련한 잣죽과 귀한 보약들까지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여 오늘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였습니다.

진정 어머니 우리 당의 은혜로운 보건시책과 훌륭한 의료일군들이 아니였더라면 제가 어떻게 두번다시 태여날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훌륭한 의료일군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의 고마운 그 품을 받들어 한생 영원한 병사로 변함없는 충정의 한길만을 걸어나가겠습니다.

대동강구역 룡라1동 41
인민반 특류영예군인 한성국

하나의 지향으로 고동치는 심장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주강직장 로동계급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주강직장 로동계급의 투쟁이 북부전선에 더 많은 세멘트를 보내주기 위해 떨쳐나선 굳지의 세멘트생산기지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얼마전 련합기업소는 200일전투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러한 성과에는 집단주의위력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려는 주강직장 로동계급의 불타는 지향이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주강직장 현장사무실에서 초급당위원장 황철동무는 흐뭇한 눈길로 키를내 배인 한장의 도면을 더듬고있었다. 부직장장이 목형작업반 로동자들속에서 나온 새 기술혁신안이라고 하며 놓고간것이였다. 이것이면 불리한 생산조건을 박차고 그 어떤 주물소재도 얼마든지 부어낼수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직장의 각 작업반들에서 생산정상화의 예비로 되는 기술혁신안들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것이 기뻤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

그의 귀전에는 주물2작업반장 리성일동무가 싱글벙글 웃으며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임철학반장동무랑 강윤철반장동무랑 모두가 함께 애쓰니 막히는게 없습니다.》

임철학, 강윤철동무는 주물1, 3작업반장들이다. 그들은 일욕심많기로 소문난 혁신의 키수들이다. 서로 돕고 이끄는데서도 모범이다. 바로 그들에 의해 교대가 교대를 돕고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는 미풍이 직장안에 뜨겁게 발휘되여 교대당 2차지로 되여있던 유도로의 쇠물응해가 3차지, 4차지로 뛰여올라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게 되였다.

어찌 작업반장들만이랴. 탐구와 사색속에 일장에서 로동자들을 이끌어나가는 당세포위원장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김금철, 박광복, 강형길…

새로운 주철물생산공정을 연구도입함으로써 국가에 큰 리득을 주고 세멘트생산의 정상화를 담보해나선 자랑찬 성과속에도 건설건재공업성의 어느 한 연구기관 연구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온 당세포위원장들의 학구적인 열정이 슴배여있었다.

(이런 마음들이 합쳐지면 못해낼 일이 없지.)

도면을 접어들고 사무실문을 나서는 초급당일군의 눈앞에는 하나같이 키돋움을 하며 솟구쳐오르는 작업반별경쟁도표가 안겨들었다. 그 밑뿌리로 되고있는 생활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고 오랜 기능공이 신입공을 도와주는 집단주의열풍속에 아름다운 일화가 많이 생겨난 주강직장이다.

교대당 쇠물응해차지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되는 과철보장을 위해 교대후이면 의례히 과철운반에 떨쳐나서는 사락작업반, 수리작업반, 설비운영작업반, 목형작업반을 비롯한 직장의 로동자들.

모두다 만리마시대의 자랑찬 기수가 되자!

이 하나의 지향을 안고 직장의 모든 로동자들이 위훈의 하루하루를 새겨가고있다.

《우리모두가 오늘의 진군길을 나란히 앞장서 달리고 위훈을 창조해나갈 때 그만큼 직장의 자랑이 커지고 나라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 늘어날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나어린 신입조형공들을 위해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고급기능공인 조형공 김명옥동무의 심정만이 아니다.

집단의 단합된 힘이야말로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는 크나큰 원동력이라는것을 주강직장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그렇게 200일전투의 보람찬 나날에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다.

20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주강직장 초급당일군의 사무실책상우에는 부피두툼한 종업원명단이 새로 생겨났다.

바로 그 명단과 더불어 200일전투가 시작되여 보름 남짓한 기간에 종업원들의 집집에 땔감이 보장되였다. 일군들의 그런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주강직장 로동계급속에서 꽃펴난 혁신의 이야기들은 또 얼마였던가.

기적창조의 불길은 하나로 합쳐진 마음, 하나로 고동치는 심장들이 지펴올릴 때 더 거세차진다. 집단의 힘과 의지로 주물생산에서 장훈을 부르자!

이런 지향을 안고 지금 주강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생산의 동음을 더욱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신현규

송만풍체송국에서 — 본사기자 신송혁 찍음

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간다. — 동앙우편당출판물들을 대고조전투장들에 신속정확히 보내

박근혜의 퇴진이야말로 혼란수습의 지름길, 박근혜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남조선 전지역의 1550여개 각계층 단체들 비상시국회의 결성, 공동행동 전개, 10대의 청소년들까지 박근혜퇴진투쟁에 합세

【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각계층의 한결같은 퇴진요구를 외면한채 뻔뻔스럽게도 갖은 술책으로 권력을 연장해보려고 발악하는 청와대악녀에 대한 항의기운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2일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를 비롯한 전지역 1553개의 각계층 단체들은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공동행동에 나섰다.

단체들은 특별검의문을 통해 박근혜의 퇴진이야말로 혼란을 수습하는 지름길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민중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야말로 정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이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보건부문의 의사 2 507명, 전국장애인차별철폐련대, 경상북도 안동지역의 박근혜, 최순실 국정유린 안동시민사회단체, 환경회의 관계자들 등이 각각 시국선언운동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은 시국선언운동을 통해 박근혜는 이번 사건의 핵심장본인으로서 민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국민의 뜻이다. 박근혜대통령 즉각 수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라》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렸다.

이에 앞서 1일 력사문제연구소, 《한국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력사학계 47개 학회 및 단체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일방적정책들이 결국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결과가 아니였다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3일에는 로총, 현대중공업로조, 전북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과 울산, 전라북도 전주 등지에서 각각 시국선언운동을 벌리였으며 11월 12일 범국민적인 《정권》퇴진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전국녀성련대, 녀성단체련합 등 40여개 녀성단체 성원들도 이날 시국선언운동을 전개하면서 글욕 《합의》로 력사를 팔아먹은 륙두각시에게 《정권》을 맡길수 없다, 박근혜는 녀성들에게 더 큰 치욕을 안겨주었다, 답은 하나다, 박근혜는 당장 퇴진하라고 함성을 터쳤다.

기독교교회협의회의 8개 회원교 단장들도 시국선언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통령》스스로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합쳤다.

민주로총은 2일 비상시국회의를 가지고 총파업을 벌리면서 모든 력량을 박근혜퇴진투쟁에 집중할것을 선언하였다.

4일에는 예술인들이 권력형부정부패사건의 장본인들인 박근혜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여 288개 문화예술단체 7 449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전국사범대학단과 교육대학생련합을 비롯한 교육계의 34개 단체들이 전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운동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대학생들은 전지역의 대학교총학생회들로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학생들은 서울의 피뢰정부종합청사앞에서 시국선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회소속 2 000여명도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명하였다.

광주카톨릭대학교 신학생회와 대구카톨릭대학교 대신학원 학생들은 공동으로 민심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3일 하루동안에만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성원들 그리고 동국대학교,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울산대학교, 부산과 광주, 제주도, 대구 등 8곳에 있는 교원대학들을 비롯한 각 대학 교수, 학생들이 일제히 시국선언운동을 전개하였다.

최순실족속의 추문행위가 알려진 초기 시국선언운동에 나섰던 리화녀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도 이날 또다시 시국선언운동을 전개하였다.

각계의 시국선언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때 《국회》의장, 《국무총리》, 장관, 정당대표로 있던 주요인물들과 시민사회단체인사들, 목사 등 각계층 원로 20여명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현 추문사건으로 박근혜의 통치력과 도덕성은 상실되였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1일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이 박근혜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는가 하면 전라북도 김제지역에서는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중학생들의 첫 집회가 열렸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종교계, 사회계, 정계원로들의 행렬에 10대 청소년들도 들어서서 뜻을 모아 국정롱락사태를 규탄하고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전하였다.

시국선언운동이 전지역적인 국민운동으로 계속 확대되는 속에 2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는 2016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주최로 박근혜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이 전개되였다.

시민사회단체성원들, 시민들,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주민들, 대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전에 막후실세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날뛰긴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롱락하였다고 성토하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정윤회국정개입사건때 청와대문건류출혐의로 일부 관계자들이 검찰수사를 받도록 하였는데 기밀을 직접 최순실에게 루출시킨 박근혜는 국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계가 단합하여 모인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광화문광장에 나와 부정부패집단을 몰아내고 반드시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초불과 구호판들을 들고 시위행진을 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지지를 표시하였는가 하면 대렬에 합세하여 투쟁분위기를 고조시켰다.

3일에는 인천과 충청북도 충주에서 시민들과 학생들, 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초불을 들고 박근혜퇴진의 함성을 쳤다.

피뢰억도년이 권력연장을 위한 음모책동의 하나로 벌려놓은 개각놀음은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로총, 로총은 밑실개각인사는 민중의 분노와 저항만 부추길뿐이다, 이런 시국에 《정부》의 수명을 늘여주겠다고 개각에 나선 후보자들도 문제라고 비난하였다.

공공운수로조, 금융로조를 비롯한 로조단체들도 이것은 최순실의 국정롱락과 련계된 이전의 정책들을 강행할 기도를 보여준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죄하며 항의운동에 나섰다.

참여련대는 이번의 개각놀음이 청와대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로서 자격과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라고 성토하였다.

특히 《총리》로 지명된자가 교수로 있던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에게 분노를 표시하며 국정을 롱락한 주범이 어떻게 《총리》지명권을 행사할수 있단 말인가고 항의하였다.

남조선 각계의 반박근혜합성에 야당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합세하고있다.

3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0명의 야당의원들이 박근혜에게 검찰수사를 받는것은 물론 퇴진 또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총리》지명을 철회하는것과 함께 새 《총리》의 결정을 《국회》에 위임하고 물러나 오늘이라도 자진하여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발표하라고 들이댔다.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과 관련하여 남조선과 외국의 언론들은 앞으로 박근혜 《정권》의 회유키만 책동에 맞서 전개될 시위의 규모와 참가자들의 행동 등 모든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남조선 각계가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단호히 배격

【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역도가 4일 최대의 국정롱락추문사건과 관련하여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역도년은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느니,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받아들이겠다.》 느니 뭐니 하면서도 자기의 죄행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의 역할이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여있었고 국정롱락사태가 최순실의 개인적인 잘못인듯이 력설하였다.

《안보위기》요, 《어려운 경제》요 하면서 국정혼란과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뻔뻔스러운 궤변으로 남조선인민들의 퇴진요구를 거부해나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중의 성난 민심과 분노, 불안을 해결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개인방송이였다고 반발해나섰다.

오늘 여론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박근혜에 대한 지지률이 사상 초유인 5%로 나오고있는데도 《담화》에서는 국정롱단과 국정마비의 총책임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박근혜는 민중의 인식과는 너무도 먼 판단을 하고있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원내대표는 박근혜가 권력형부정부패행위에 대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해나선데 대해 민중의 가슴에 비수를 댄것이라고 락인하였다.

최순실과 청와대수석비서관이였던 안종범 등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가지고 돈을 걷어 한일이 어떻게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한》 일로 될수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그는 그 어느 민중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전 국민의 당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면전환용, 책임전가용담화》라고 단죄하였다.

인터네트에 올린 글에서 그는 박근혜가 현 추문사건을 최순실 개인이 잘못한 문제로 전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박근혜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수사방향을 제시한것이나 같다고 그는 까밝혔다. 그는 지금 민중의 요구는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것이라고 하면서 그것만이 사상 류례없는 국정롱피사태를 끝낼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기는 범죄혐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식으로 력설하고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최순실, 안종범추문사건》으로 돌려치우려는 박근혜의 《담화》에 진짜피해자인 민중의 가슴이 무너진다고 피력하였다.

한편 박근혜퇴진운동에 떨쳐나선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의 《담화》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즉시 반발해나서면서 주말의 대규모초불시위를 예정대로 강행할 의지를 선언하였다.

참여련대 공동사무처장은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담화》는 어떤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일방적인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 《외로운 닷》이요 뭐요 한것은 거짓말,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는 5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초불시위로 민중의 무섭고 위대한 힘을 보여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진보련대 정책국장도 제가 망쳐놓은 안보와 경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면서 하야요구를 거부한 《담화》,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 민중을 기만하는 언사라고 규탄하였다. 이번 《담화》로 하여 민중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질따름이며 5일에는 더 많은 민중이 분노를 안고 광화문광장으로 나설것이라고 그는 표명하였다.

《새누리당》 비박계의원들속에서도 민중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것 같다, 참담하다, 《친박계》해체를 선언했어야 한다, 꾸며진 각본대로 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근혜년의 《담화》를 멀레 비켜보는 서울과 제주 등 전지역의 각계층 시민들속에서는 《이게 사과인가.》 하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손가락질이 이어졌다.

40대의 한 주민은 지금껏 박근혜에게 속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60대의 한 녀성은 《수박겉핥기식사과에 누가 진정성을 느끼겠느냐. 자기 조장에 깔들어져있어선지 미안한 표정 하나 없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뻐스정류소와 비행장 등 곳곳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판에 고개만 까딱이고 들어가버렸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수 있느냐.》, 《참담하다. 어떻게 저럴수 있는가.》 등 비난의 목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인터네트카페지기들도 역도년에 대한 저주와 야유로 끓어번졌다. 그들은 박근혜의 발언을 하나하나 비꼬면서 《대국민설교선언》 등으로 조소하였다.

《KBS》방송에 의하면 박근혜의 《담화》에 대해 외신들도 부정적이고 랭담한 분석을 내놓고있다.

미국의 AP통신은 박근혜가 선택한 《총리》후보자가 《국회》로부터 거절당하고 야당이 선택한 누군가를 임명해야 하는 압력에 처하게 되면 통치능력을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본의 NHK방송도 박근혜가 임기를 1년 3개월 남긴 상태에서 지지률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진것만큼 사태를 타개할수 있을지 매우 모연하다고 평하였다.

추문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필사적발악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남조선이 사상 최대의 혼란과 파국에 빠져들고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사건으로 발단된 이 사건은 지금 일파만파의 충격을 일으키고있다. 박근혜가 아무리한 공직도 없는 일개 아낙네에게 청와대의 권력을 통째로 넘기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인형처럼 놀았다는 사실은 내외의 경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사건으로 하여 박근혜역적패당은 치명적인 강타를 맞고 파멸의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외신들은 박근혜의 집권위기가 극도에 달하였다고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 박근혜역도가 매맞은 암개모양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대국민사과》놀음을 벌려놓았다. 그런데 역도는 사건의 전모에 대한 해명은 없이 연설문수정에 대해서만 거들먹거리면서 뻔뻔스럽게도 《청와대에 체계가 완비된 다음에는 그만두었다.》 느니 뭐니 하고 몇마디 내뱉고는 황급히 꼬리를 사렸다.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일관된 이 기만적인 《사과》놀음은 남조선인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더욱 키질하였고 각계층속에서는 《타는 짚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비발쳤다.

문제로 되는것은 그에 뒤이어 벌어진 최순실의 음직임이다. 한동안 종적을 감추었던 최순실이 해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연설문수정에 대한 변명에서는 신통히도 박근혜의 《대국민사과》와 혼조가 묘갈았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기자들이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파렴치한 나발을 제치며 박근혜의 연설문수정자료를 비롯한 범죄증거가 가득 들어있는 제년의 콤퓨터에 대해 《내것이 아니》라느니, 자기는 콤퓨터를 다룰줄도 모른다느니 하고 시치미를 뗐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는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실제로 박근혜역도의 《대국민사과》놀음과 최순실의 기자회견은 사건을 시급히 덮어버리고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음모책동의 시작이였다. 최순실의 기자회견이 끝나기 바쁘게 박근혜역도는 《새누리당》대표 리정현을 비롯한 친박계패거리들과 사태수습을 위한 꿍꿍이판을 벌리였다. 그에 따라 박근혜역도의 최측근들이며 사회적비난의 초점이였던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우는 리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들이 나떨어지고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핵심관계자로 지목된 우병우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리원종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한꺼번에 교체되였다.

한편 박근혜역도는 오래동안 《권력의 알잡이》, 《정치검찰》로 악명을 떨친 최재경이라는자를 검찰을 좌우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피뢰검찰로 하여금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만적인 조사놀음을 벌리게 했다.

박근혜역도의 지령에 따라 피뢰검찰당국은 그 무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니 뭐니 하며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그것은 청와대가 던져준 몇건의 자료를 들어다보는데 그친 흉내내기놀음에 불과했다.

지금 검찰패거리들은 그 무슨 《국정혼란》에 대해 떠들며 오히려 박근혜역도를 비호두둔하는가 하면 기만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놀음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려고 획책하고있다.

피뢰검찰나부랭이들은 남조선으로 돌아온 최순실을 즉시 체포하여 조사하라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느니, 《체포령장이 없다.》 느니 하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며 시간을 질질 끌어 그가 증거를 없애버리고 수사에 대처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주었다. 지금 피뢰검찰은 요란한 수사조를 구성하고 《최순실에 대한 긴급조사》니 뭐니 하며 법새를 피우고있다. 하지만 그 놀음이 어떤 결과를 빚어내겠는지는 명백하다. 피뢰들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이 터져나왔을 당시 정윤회를 구구 비호두둔한자를 최순실에게 변호사로 붙여준 사실도 이번 사건이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하는것을 잘 시사해주고있다.

현 사태는 박근혜역적패당이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고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박근혜역적패당이야말로 씨올대로 썩은 구린내나는 특등범죄집단이며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음모군, 사기협잡군들이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삐여져나오기마련이다. 박근혜패당이 이번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을 덮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연설문수정자료가 들어있는 콤퓨터의 소유자가 최순실이라는 사실, 그가 박근혜를 틀어쥐고 좌지우지하였다는 사실 등을 명백히 립증해주는 부인할수 없는 증거자료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은폐하려는 피뢰들의 교활한 책동은 오히려 남조선 각계의 더 큰 항거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전역으로 확대되고있는 박근혜퇴진투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현정세는 격렬한 투쟁으로 리승만독재통치를 끝장낸 4.19인민봉기와 《유신》독재자를 멸망시킨 10월민주항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본사기자 은정철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담화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와 위상에 질겁한 일본당국과 우익반동세력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 더욱 미친 증세를 보이고있다.

이미 천명된바와 같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국방력강화조치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굳건히 지키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행사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패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을 선고하는 승전고를 울릴 때마다 불에 덴 송아지마냥 길길이 날뛰며 그 무슨 《관계국들의 대응책마련》이니, 《제재결의》 채택이니 하면서 궤진 북을 계속 두드려대고있다.

가소로운것은 일본당국과 우익반동들이 미국의 야단법석에 연방 제채기를 해대며 그 누구를 자극시켜보려고 우습강스럽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일본수상 아베는 우리 공화국의 핵탄두폭발시험성공소식이 전해지자 창백하게 질에 질린 몰골겉으로 림시국회라는데 나타나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도전이며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 느니, 《국제사회와 련계하여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 느니 뭐니 하면서 비린청을 한껏 돋구었다.

제거물을 물고 쏟아내는 아베의 악청에 장단을 맞추며 일본자민당패거리들은 때를 만난듯이 골방에 모여앉아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간부들에 대해 제입국금지대상을 확대하겠다느니, 송금을 제한한다느니, 3국을 경유한 대조선무역을 철저히 차단한다느니 뭐니 하는 독자적인 제재항목까지 고안해내고 이를 강행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은 유일한 피폭국인 저들의 수치스러운 과거사를 자랑거리나 되는듯이 요란스레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시험에 대하여 그 무슨 《항의결의》라는것을 채택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천적인 거부감, 적대감으로 체질화된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편승하여 또다시 《단독제재》요, 《항의결의》요 뭐요 하면서 미친듯이 떠들어대는것은 국제적으로 정치난쟁이로 지탄받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가련한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엄중한것은 전례없이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섬나라 오랑캐들의 이러한 반공화국소동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조직을 말살하고 재일동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히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라는데 있다.

일본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무장경찰들과 장갑차들까지 내몰아 총련의 여러 조직들과 학교들을 강제수색하고 무고한 재일동포들을 폭행, 체포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적폭거들을 루차 감행하였으며 우익깡패들을 비롯한 여중이떠중이들을 부추겨 일본전역에 조선사람이 숨쉬고 살수 없는 살벌한 분위기를 고의적으로 조성하고있다.

지금 일본경찰청과 공안조사청은 구린내나는 일본사회의 악폐나 바로잡을 대신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진드기처럼 집요하게 탄압의 마수를 뻗치고 감시, 미행, 매수책동에 배탈리면서 발광하고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총련학교가 있는 지방자치체 28개도, 도, 부, 현들에 조선학교보조금지불에 대한 재고려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하달한데 이어 그 집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압력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우익반동단체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이 때일과 같이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기관 사무소들과 개별적가정들에 살인협박전화를 걸고 방송차까지 몰고와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비방중상하는 악담질을 해대고있다. 지어 일본우익깡패들은 재일조선학생들의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다 못해 그들의 신성한 교정에까지 란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깡패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일본당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밑에 감행되는 비렬한 반총련책동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강화조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몰아오는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며 그것이 곧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의 구실로 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기회로 일본반동들이 이른바 《법치》와 《인권》의 히솝마저 다 벗어버리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국가적테로를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는 음흉한 속심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아베보수당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기 위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앞장선 대가로 일본의 군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총련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해외교포조직이며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우리의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온갖 반인륜적이며 비인도주의적인 란압말살책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행위이다.

천만년을 두고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파렴치한 죄의식은 코물만치도 없이 반공화국, 반총련란압에 악착스럽게 미쳐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추한 몰골은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일본반동들이야말로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조선민족의 백년숙적이며 섬나라 오랑캐들과는 오직 힘으로 모든것을 철저히 결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은 무분별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배탈리면 배탈릴수록 제땅에서 가장 참혹한 종국적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악몽의 시각만을 재촉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05(2016)년 11월 4일
평 양

박근혜역도년의 지지률 5%

4일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역도년의 지지률이 5%라는 사상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

남조선의 여론조사기관이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거의 100%가 박근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긴급보도하면서 《국민일보》는 5%의 지지률은 력대 《대통령》지지률중 최저로서 김영삼이 세운 최악의 기록보다도 1% 낮은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에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박근혜의 지지률은 최근 1주일사이에 2.8%나 떨어졌다.

언론들은 보수세력의 지지기반인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도 지지률이 19%나 추락하는 등 박근혜에 대한 《핵심지지층》의 와해가 빠르게 진행되고있다고 밝혔다.

해외동포들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여 투쟁 전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2일현재 미국 로스안젤스에 있는 괴뢰총령사관앞에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재미동포들의 시위가 계속되고있다.

시위참가자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 《최순실의 폭두각시 박근혜는 하야하라》 등의 글이 씌여진 선전물들을 들고 너무도 수치스러운 국정롱락사태에 대해 박근혜가 책임지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워싱톤에서도 재미동포들의 시위투쟁이 있었다.

재미동포단체들은 오는 12일 남조선에서의 민중총궐기투쟁에 련대하여 미국의 곳곳에서 대규모집회를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29일 제카나다동포들이 토론토에서 박근혜의 국정롱락을 규탄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백의민족의 자긍심이 어리석은 권력자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고 롱락당한 현실앞에 탄식을 넘어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박근혜가 취임이후 줄곧 민심을 외면하고 민중우에 군림하는 고집불통의 녀왕노릇을 한것이 한갖 거간군이나 다름없는 녀인에게 의탁한 권력놀음이였다는것이 마침내 날날이 드러났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한편 1일 미국, 오스트랄리아에서 류학하고있는 남조선학생들이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가지고 선언문들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졸렬한 사고방식을 버리라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파렴치하고 졸렬하게 놀아대는 나라는 없다.

얼마전 일본외상 기시다가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항목심의절차를 개선하라고 삿대질을 해대면서 기구에 올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일본의 이 망동이 지난해에 유네스코가 과거 일본의 남경대학살만행과 관련한 자료를 세계기록유산명단에 올린데 대한 반응이라고 평하고있다.

결국 일본이 세계기록유산항목심의절차를 개선하라는것은 저들의 과거죄악과 관련한 유산들을 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네스코의 돈줄을 잘라 목조르기를 하겠다는것이다.

정치난쟁이 일본만이 카지고있는 치졸하고 저렬한 사고방식의 발로이다.

유네스코의 회비는 기구의 규약에 따라 성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있는 분담금이지 그 무슨 기부금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흥정물로 여기면서 불순한 정치적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다.

일본정객들의 사고는 완전히 삐뚤어졌다. 지난 세기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일본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은 공인된 력사적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만도 일제는 인간의 두뇌로써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가장 잔인한 수법으로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총으로 쏘아죽이다 못해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고 목을 때달아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등 온갖 야수적인 범죄만행들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살인방법과 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일본이 패망하고 도주할 때 범죄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 불태워버린 자료외에 남아있는 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해보더라도 우리 나라 강점기간 학살당한 조선사람의 수는 100여만명에 달한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살륙만행이 잔악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자료들은 인류가 두고두고 력사적교훈으로 새겨야 할 피의 유산이다. 바로 그래서 유네스코가 일제의 과거죄악과 관련한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것이다.

사실 일이 바로되자면 일본당국자들이 지난해 유네스코의 결정이 나왔을 때라도 늦게나마 과거죄악을 심각히 돌이켜보고 깊이 반성하였어야 하였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나왔는가. 문제가 상정되자마자 정계의 인물들이 저마끔 나서서 유네스코가 개별적인 나라의 정치적목적에 리용되고있다느니, 한때 있었던 일을 쓸데없이 부각시키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과거죄악과 관련한 자료의 세계기록유산등록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야말로 낯가죽이 소말통같은자들만이 할수 있는 철면피한 행위였다.

일본이 그토록 기를 쓰고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구가 문건을 심중히 검토한 후 그것이 정카심사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자료의 진실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이 없다고 강짜를 부렸다. 그런가 하면 저들이 유네스코에 많은 돈을 내면서 《협조》하고있는데 기구가 한 나라의 련역만을 들어주었다고 엉터리없는 앙탈질을 하면서 응당 내게 되어있는 회비를 삭감하겠다고 위협적으로 나왔다. 그래도 일이 저들의 뜻대로 흐르지 않게 되자 그것을 속에 품고있다가 이번에는 아예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졸렬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세계에는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적지 않지만 이렇게 일본처럼 철면피하고 유치하게 놀아대는 나라는 없다. 세계는 이번에 일본정객들의 너절하고 치졸한 행위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일본특유의 고질적인 악습을 다시한번 보고있다.

일본은 언제 한번 성근하게 과거범죄를 인정해본적이 없다. 모든것을 덮을수 없는 돈으로 어물쩍해서 덮어버리려 하다가 사람들의 환멸만 자아냈다.

세계도처에 세워진 성노예상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에 성노예소녀상이 건립되었을 때에는 《녀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이라는것을 통해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너무리를 늘어놓았다가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뉴저시주 펠리 세이즈파크시에 건립된 성노예추모비를 철거시키려고 흥정놀음을 벌리다가 세계면전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다. 지난해에는 녹거리자금지출로 저들의 극악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기로 한 일본남조선《합의》를 놓고 마치도 문제가 다 해결된것처럼 놀아대며 성노예상을 없애버리라고 피뢰들을 압박하였다. 인륜도덕도 모르고 체면도 모르는 일본의 정객들만이 할수 있는 너절한 추태였다.

이 지구상에 일본의 정객들과 같은 저렬아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자체가 인류의 수치이다.

문제는 돈으로 만사를 다 해결해보려고 하는 일본반동들의 행동을 외교적미숙성으로만 볼수 없다는것이다. 어기에는 과거의 침략력사를 덮어버리고 그 청산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범죄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고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며 또다시 그것을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같다. 실지 일본은 그걸로 줄달음치고있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돈주머니를 흔들며 치졸하게 놀아대는 정체동물의 알은수에 놀아날 세계가 아니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반인륜적범죄는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일본이 그 어떤 권모술수를 다 써도 력사는 사실대로 남아있기마련이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이 력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계속 비렬하게 놀아댄다면 죄는 그만큼 더 커지게 될것이며 국제사회의 버림밖에 받을것이 없다.

세계는 과거범죄를 부정하며 또다시 지난 20세기 전반기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일본을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있다.

일본의 정객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하건대 졸렬한 사고방식을 버려라.

이것은 남을 위한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한것이다. 또 이 길만이 일본이 세계적인 규탄과 고립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리 학 남

조선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참다운 인권을 향유하고있다

우리 나라 대표 유엔총회 회의에서 강조

【평양 11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유엔총회 제71차회의 3위원회(사회, 인권, 인도주의) 회의에서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토의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와 꾸바, 이란, 짐바브웨를 비롯한 50여개 나라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우리 대표는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참다운 인권을 향유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인민의 고통과 불행을 가셔주는것을 더없이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8월말-9월초 류례없는 돌풍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한시바삐 안착시키고 그들에게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가가 인적, 물질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 총집중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나라의 인권보장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권리보장과 생활향상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광란적으로 벌리는 《인권》소동의 본질과 반동성을 폭로단죄하고 유엔이 미증앙정보국의 고문만행과 《자유의 녀신상》아래에서 만연하는 미국의 각종 인권유린행위,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해보려는 일본의 교활한 책동, 우리 공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들의 집단유인랍치만행 등을 공식의제로 위급하고 시급히 대책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도발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은 그 누구에 대해 시비하기 전에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로 전락된 저들의 참혹한 인권유린실태부터 바로잡으라고 박아주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맹종맹동하지 말고 과거 반인륜범죄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하였다.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

민주꽁고통신사 인터네트의 글

민주꽁고통신사 인터네트홈페지가 최근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리념은 자주, 평화, 친선이다.

이 리념에 따라 공화국정부는 세계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또한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평등과 정의,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며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경제 및 문화교류를 활발히 벌리며 친선의 뉴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있다.

오늘 세계 각국에서 조선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

브라질단체 인터네트에 글 게재

브라질주제사상연구센터가 최근 인터네트홈페지에 《《북조선위협설》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미국의 정객들이 《북조선위협설》을 지꿎게 떠들어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초대국이라는 나라가 크지 않은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고있다는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며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뽐내는 나라이다.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군사비를 지출하고있는것도 미국이다. 이러한 초대국이 령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대비도 되지 않는 북조선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누가 곧이 듣겠는가.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북조선이 미국에 대고 할 소리이다.

글은 미국이 지난 반세기이상 위협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핵위협을 우리 공화국에 끊임없이 가해온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력사적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핵열점지역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북조선은 피해자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조선위협설》을 떠들어대는것은 북조선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저들의 적대시정책,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력대 미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현 오바마행정부도 북조선의 《핵문제》, 《인권문제》 등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이 나라에 대한 침략계획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극도에 달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북조선지도부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였으며 미국과의 최후결전을 결심한 상태이다. 이 최후결전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조선의 군대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당해낼수 없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다. 최고사령관과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있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절사관철하는것이 바로 조선인민군이다. 딸라에 팔리운 미국의 고용병들은 상대조차 할수 없는 정신적강자들이다.

미국이 군사기술적우세를 떠들지만 북조선은 공격과 방어에 다 준비된 나라이다.

행성의 그 어디든 타격할수 있는 전략군과 임의의 수역에서 수중탄도탄을 발사할수 있는 전략잠수함들이 미국의 군사기지들을 겨냥하고있다.

만일 전쟁이 리진다면 미국의 핵무기들이 용을 쓰기 전에 백악관은 물론 미국의 대도시들이 불바다에 잠기게 될것이다.

오바마가 리성을 가지고있다면 이것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 자국의 종말을 불아올수 있는 북조선의 《해위협》을 막을 묘책은 수가 있는가?

요격미싸일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고 《싸드》를 남조선에 전진배치한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 대책은 단 하나 미국이 북조선을 건드리지 않는것이다. 즉 북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조선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것이다.

미국에 대한 북조선의 《위협》은 미국을 침략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막자는데 있다.

【조선중앙통신】

흑인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호소

남아프리카대통령 쟈코브 제들레이홀레키사 주마가 10월 28일 한 연설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흑인들의 역할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지난 인종주의시기에는 흑인기업가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하면서 그는 이제는 흑인들이 경제발전분야에서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부가 흑인들의 취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경제개혁을 진행하며 그들을 경제활동에 적극 망라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려는 립장을 밝혔다.

밀렵반대투쟁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

탄자니아대통령 존 마구풀리가 10월 29일 한 회의에서 코끼리밀렵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며칠동안에만도 50개의 상아가 압수된데 대해 밝히면서 결국 이것은 25마리의 코끼리가 밀렵자들에 의해 죽은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코끼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밀렵반대특수그루빠가 밀렵행위를 뒤에서 추동하고 재정적으로 뒤받침하는 막후인물들을 시급히 적발해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누구도 여기서 예외로 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발뜨해연안 나라들에 대한 나토의 무력증강책동에 경고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가 10월 31일 신문 《이즈베스찌야》와의 회견에서 발뜨해연안 나라들에 대한 나토의 무력증강책동에 대응조치를 취할 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나토가 동부익측을 강화하기 위해 흑해일대에서 군사적주둔을 확장하는 한편 다음해초에 발뜨해연안 나라들과 폴스까에 각각 1 000명규모의 다국적군을 증강배비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로씨야는 이를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이에 앞서 그는 나토의 이러한 무력증강책동이 1997년에 조인된 로씨야-나토기본문건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요르단과 쿠웨이트가 10월 30일 건설분야에서 투자를 늘여나갈데 대한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같은 날 수단과 케니아가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공업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2건의 량해각서를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전력문제해결노력

라오스에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전력부문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지난 20년동안 나라의 총전력생산능력을 현저히 늘이였다. 정부는 수력발전소들을 더 건설하여 2030년까지 주민의 98%가 전기를 사용할수 있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항구확장계획

아르헨띠나정부가 최근 로싸리오시의 항구를 개건확장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항구의 하루 화물처리능력이 현재의 5 000t으로부터 1만 2 000t으로 늘어나게 되며 구내도로들에 대한 개건공사도 진행되게 된다.

아르헨띠나는 세계적으로 콩을 비롯한 농산물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들중의 하나로서 로싸리오시의 항구는 여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고 한다.

무역발전성과

마로끄가 아프리카나라들과의 무역발전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10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나라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륙나라들과의 무역이 해마다 11%의 장성을 기록하였다 한다.

해적행위와의 투쟁 강화

나이제리아가 최근 해적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정부는 화물선들에 대한 해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해군무력을 전개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난 3개월동안에 해적들의 공격건수가 45건으로부터 4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전염병방지노력

나미비아에서 최근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지난 7월 북부의 3개 지역에서 비루스에 의한 급성전염병인 뉴카슬병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새들의 이동을 감시하는것과 함께 관상용새들을 팔고사는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커피생산

케니아에서 올해 커피생산량이 4만 7 000t에 이를것으로 예견되고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 000t 더 많은것이다.

나라에서는 커피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재배면적을 5 000ha 더 늘이였다고 한다.

경제장성

방글라데슈에서 올해 6월에 끝난 지난 회계년도에 경제가 그 전회계년도에 비해 7.11% 장성하였다. 특히 공업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10월 25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유독성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액체분석장치 개발

최근 로씨야의 연구사들이 중금속과 같은 유독성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액체분석장치를 개발하였다. 분석장치는 두께가 1mm, 크기가 3×3mm인 투명한 수지조각들로 이루어진 폴리메타크릴산에스테르수감기들에 기초하고있다.

연구사들은 특수시약으로 처리를 하면 특정한 물질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우 작은 수지기질에 주목을 돌리였다. 기질은 물질의 농도에 따라 색갈과 그의 세기가 변화된다. 기질의 구멍들은 지장용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곳에서 여러가지 화학반응들이 진행된다.

특수시약으로 기질을 처리하면 특정한 물질들에 한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질을 물에 담그었다가 분석기에 넣으면 특수전자장치가 빛신호를 수감하여 그것을 3통로 RGB신호로 변환한다.

신호를 처리한 다음 분석장치는 찾아낸 물질의 농도에 관한 자료를 수자형태로 나타낸다.

이 장치로는 물속에 들어있는 거의 모든 금속들과 유기물질을 신속히 분석할수 있으며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분석을 진행할수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싸이버공격사건을 둘러싸고 심화되는 로미모순

미국이 싸이버공격을 받고 부닥소동을 일으키고있다.

지난 7월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싸이버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전국위원회 지도부 성원들이 자기 당의 다른 후보자를 제쳐놓고 힐러리를 편향적으로 지지한 내용이 들어있는 전자우편 1만 9 000건과 29건의 음성메세지가 해킹당하여 언론에 공개되였다. 그로 하여 민주당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2개주의 선거관리위원회 콤퓨터망이 또다시 해커들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통령선거가 박두해오고있는 지금 미국에서는 콤퓨터망에 대한 싸이버공격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물망에 오르고있다.

미국내안전성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달사이에 20여개 주의 선거자등록체계가 해킹당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미국이 이 싸이버공격사건의 배후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공격의 예봉을 로씨야에로 돌리고있는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대규모 싸이버공격사건의 내막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정체인물들이 줄줄이 나서서 로씨야해커들이 미국의 선거시설을 공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의 유력인물인 국회 하원 원내총무는 기자회견에서 싸이버공격사건이 로씨야의 소행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1972년 대통령선거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 공화당이 범죄자들을 워터게이트호텔에 자리잡고있는 민주당본부에 침입시킨 사건을 실례로 들면서 《싸이버공격에 의한 워터게이트사건》이라고 하며 로씨야를 비난하였다.

미국가정보국 장관은 로씨야가 미국선거자료와 정치기구를 해킹하였다는 최근보도는 사실상 새로운것이 아니며 로씨야인들은 미국정부기관뿐아니라 기업체와 개인자료도 항상 해킹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를 싸이버공격사건의 배후자로 걸고들었다.

사태는 미국정부가 로씨야의 싸이버공격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공식립장을 밝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국내안전성과 미국가정보국은 로씨야가 미국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싸이버공격을 가하였다느니, 민주당전국위원회뿐아니라 선거운동관계자들도 공격을 받았다느니 뭐니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최근에 잇달아 발생한 싸이버공격사건의 주모자로 로씨야를 정식 지목하였다. 미국부대통령 바이덴은 공개석상에서 로씨야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단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푸찐대통령은 미국의 소동을 히스테리적행동으로 락인하면서 로씨야를 미국내 정치싸움을 위한 《돌리개》로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련방정의회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측이 로씨야에 싸이버전을 도발하는것은 일종의 국가적인 싸이버테로행위이며 로씨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 1962년 꾸바의 미싸일위기이래 로미사이에는 여직껏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적이 없다. 로씨야측은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로씨야감정을 조장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의 한 변호사는 로씨야가 미국에 싸이버공격을 하였다는 주장은 정치적리익을 목적으로 한 선전용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정치인도 로씨야는 해킹같은 더러운짓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랭전시대는 로씨야가 아니라 미국이 만들고있다고 까밝혔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로씨야와 미국은 수리아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관계에 있다. 수리아정부군기지에 대한 미국의 불의의 공습으로 하여 힘들게 이룩된 수리아에서의 전국적인 정화실시에 관한 로미사이의 합의가 파기된데 이어 핵무기축감문제는 물론 정화적인 핵에네르기리용문제에서도 로미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싸이버공격사건과 관련한 로미사이의 호상비난전은 우연한것이라고 볼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장하는 싸이버공격설에는 어떻게 하나 로씨야에 싸이버범죄자의 모자를 씌우고 그것을 구실로 일련의 국제문제들에서 로씨야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날로 높아가는 반제자주화기운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세력은 날로 장성강화되는 반제자주력량을 말살하고 쇠퇴몰락하는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최후발악하고있다. 도처에서 합동군사연습과 무력간섭,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와 압력, 내정간섭행위를 일삼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은 커다란 위협을 받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힘으로도 정의와 진리를 수호하려는 자주력량의 굳센 의지는 꺾지 못한다.

지난 10월의 국제정세흐름이 그를 잘 말해주었다.

조선반도정세가 의연 세계의 초점으로 되였다.

내외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광기는 더욱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제는 10월 7일 오전 괌도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동지를 틀고있는 핵전략폭격기 《B-1B》를 조선반도주변 상공까지 비행시키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핵공갈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이에 앞서 핵전략폭격기를 남조선지역 상동사격장에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의 주요전략적핵심시설들을 타격하기 위한 지상목표타격훈련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주요목표로 하는 도발적인 해상합동군사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미국이 《로날드 레간》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사상 최대규모의 해상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것도 성차지 않아 일본까지 끌어들여 군사적압력소동을 벌린것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장본인,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파괴자로서의 자기 정체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미일남조선합동군사훈련은 동방의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을 놀래우고 저들의 위세를 과시해보려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현실은 자위적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로선이 지극히 정당하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미일남조선이 끈질기게 벌려놓는 핵전쟁소동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지는 길로 나아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려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망동이 더욱 로골화되였다.

국우익정객들이 무리로 몰려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였는가 하면 정부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일제의 만행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한것과 관련하여 올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생떼질함으로써 저들의 도덕적저렬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지나온 과거사에 대한 뉘우침이 꼬물만큼도 없는 일본반동들이기에 이렇듯 침략야욕에 들떠 풀인지 불인지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일본에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후과로 하여 중동과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각종 테로사건들이 발생해 사람들을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수리아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로미사이의 의견대립은 더한층 격화되였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에질트 등 수많은 나라들이 《반테로전》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어 진통을 겪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초래된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테로세력소탕》과 《민주주의확립》의 미명하에 침략과 간섭으로 이 나라들의 사회정치적안정을 파괴하고 종족간, 교파간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켜놓은데 있다. 테로가 류행처럼 되고있는 실태를 두고 여론들이 미국에 그 책임을 따지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10월에 국제사회계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지배주의세력의 그 어떤 강권과 전횡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나가려는 나라들의 움직임이 적극화된것이다.

침미적인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돌려대려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필리핀의 드테르테대통령은 외국방문과정에 한 발언에서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까지 필리핀의 내정에 계속 간섭하여왔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가 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자기 나라가 독자적으로 대외정책을 실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의 여러 고위인물들도 미국이 더이상 초대국이 아니며 쇠퇴몰락하는 나라라고 야유조소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전말에 유엔총회 제71차회의가 계속 진행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유엔의 날을 맞으며 유엔을 보다 민주주의적으로 개혁할데 대한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여러 회의들에서 꾸바와 이란을 비롯한 쁠럭불가담나라 대표들은 특정한 나라들이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유엔헌장을 지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들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유엔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시급히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미국 등 서방나라들이 일방적으로 가하는 제재를 비롯한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경제적강압조치들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섰다.

아프리카나라들에서도 서방의 일방주의정책을 반대배격해나섰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속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났다.

부룬디, 남아프리카, 감비아 등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서방의 조종에 따라 아프리카사람들만을 조사하는 제국주의적기구로 전락되였다고 신랄히 비난하면서 여기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10월의 국제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날로 우심해지고 내정간섭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자주적대를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는것,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인류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반제자주화를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은 더욱더 강화될것이다.

라 명 성

ㄱ-61179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